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2025년 15th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부산대회

해문 海文 과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인문 人文 의 관계

일정_ 2025. 8. 21.^목 ~ 8. 23.^토

장소_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부산광역시 일원

자료집 1 전체회의 / 종합토론

- 주제발표** 제1주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
제2주제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제3주제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
제4주제 친환경 선박과 S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종합토론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1 일차 전체회의

8. 21.(목) / 13:30 ~ 18:30

주제 |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10호

주최·주관 |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재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사)한국섬재단

후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부산항만공사

등록	12:30~13:30	현장 등록
식전 공연	13:30~14:00	사회 이경희 한독문화교류협회 사무국장 서예 퍼포먼스 김성장 서예가
개회식	14:00~14:40	사회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개 회 사 홍석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공동조직위원장 환 영 사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축 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국회의원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덕룡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14:40~15:00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주제발표	15:00~15:25	사회 홍옥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장
	15:25~15:50	주제발표 2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정문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15:50~16:00	휴식 (Break Time)
	16:00~16:25	주제발표 3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 홍석준 도서문화연구원장
	16:25~16:50	주제발표 4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천광산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장내정리	16:50~17:00	
종합토론	17:00~18:20	좌장 최성환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토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현재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이창연 전 영남대학교 교수 부승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기념촬영	18:20~18:30	참석자 전원
환영 만찬	18:30~20:00	어울림관(B2) 5층 사회 최진이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2 일차 **분과회의 및 토론**

8. 22.(금) / 09:00 ~ 18:30

주제 |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및 본관(C1), 평생교육관(C2), 국립해양박물관 1층 국제컨퍼런스홀

주최·주관 |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재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사)한국섬재단

후 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조식 분과 좌장 회의 분과회의	07:00~08:30	여울림관(B2) 3층	
	08:40~09:00	분과 좌장 간담회	해사대학 신관(C6) 207호
	09:00~12:30	제5분과 <해양관광> 섬과 해양관광의 새로운 지평 좌장: 김낙현(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01호
	09:00~12:30	제7분과 <해양정책> 섬과 바다, 지속가능한 미래 좌장: 박석현(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사대학 신관(C6) 219호
	09:00~16:30	제8분과 특별분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좌장: 정성목(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사대학 신관(C6) 266호
	09:00~12:30	제9분과 특별분과 <해상왕장보고연구회> 장보고와 21세기II 좌장: 김영진(경북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05호
	09:00~12:30	제10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생태와 문화경관>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좌장: 이창훈(국립목포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19호
	09:00~12:30	제11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공동체기록물로 본 한국 연안 마을공동체의 20세기 생활사 좌장: 오창현(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해사대학 신관(C6) 215호
	09:00~12:00	제12분과 특별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 해양치유 좌장: 원윤희(부산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21호
	09:00~12:30	제14분과 특별분과 <한일관계사학회> 조선과 일본, 바다를 통한 갈등과 교류의 역사 좌장: 한문종(전북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11호
	09:00~12:30	제18분과 특별분과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섬과 박물관 좌장: 임동민(계명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13호
	09:00~12:30	제19분과 특별분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인류세 시대 섬과 바다 담론으로서 쿤다 모델리티 - 인간중심주의와 이주, 다중위기의 원인과 해법 - 좌장: 김치완(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해사대학 신관(C6) 217호
	09:00~12:30	제21분과 특별분과 <한국유럽학회> 유럽의 해양과 도서지역 : 환경, 지속가능성, 지정학적 도전 좌장: 김주희(국립부경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53호
	09:00~12:30	제22분과 특별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대학원생 및 학부생> 친환경 선박, 해사 데이터, 바다인문학 / 해운과 인권 좌장: 1부(친환경 선박, 해사 데이터, 바다인문학) : 이창희(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23호
	09:00~12:30	제23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양문화신진연구자> 지역 커뮤니케이션과 해양공간의 사회문화사 좌장 : 박상민(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평생교육관(C2) 214호
중식	12:30~13:30	여울림관(B2) 5층	

2 일차 분과회의 및 토론

8. 22.(금) / 09:00 ~ 18:30

주제 |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및 본관(C1), 평생교육관(C2), 국립해양박물관 1층 국제컨퍼런스홀

주최·주관 |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재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사)한국섬재단

후 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부산항만공사

분과회의 및 토론	13:30~17:30	제1분과 <해양사Ⅰ> 바닷길과 해양교류 좌장: 한정훈(국립목포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01호
	13:30~17:30	제2분과 <해양사Ⅱ> 섬과 해양역사콘텐츠 좌장: 최성환(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사대학 신관(C6) 205호
	13:30~17:30	제3분과 <해양문학> 바다를 품은 서사 좌장: 남진숙(동국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11호
	13:30~17:30	제4분과 <해양민속> 바다문화의 전통 좌장: 탁경백(국립무형유산원)	해사대학 신관(C6) 213호
	13:30~17:30	제6분과 <해양사회인류> 인류세 인문학 담론 좌장: 이창언(전 영남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15호
	13:30~16:30	제7분과 <해양정책> 섬과 바다, 지속가능한 미래 좌장: 박성현(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사대학 신관(C6) 219호
	13:30~16:30	제8분과 특별분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좌장: 정성목(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사대학 신관(C6) 266호
	13:50~17:30	제13분과 특별분과 <부경사학회·호남사학회> 부산의 바다와 목포의 바다 좌장: 강봉룡(국립목포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1층 국제컨퍼런스홀
	13:30~17:30	제15분과 특별분과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섬의 토지와 어장, 그리고 교역 좌장: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해사대학 신관(C6) 253호
	13:30~17:30	제16분과 특별분과 <어촌신활력एं커조직협의회 마을연구소> 지속가능한 어촌 지역개발정책 - 어촌 지역개발정책 집단지성 네트워크 구축 - 좌장: 김광남(어촌신활력 해남군 송호항 권역센터)	해사대학 신관(C6) 217호
	13:30~17:30	제17분과 특별분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해역과 다중위기(polycrisis) : 회복과 공존의 역사문화적 모색 좌장: 김창경(국립부경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19호
	13:30~17:30	제20분과 특별분과 <한국유라시아연구원> 강화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좌장: 이병건(동원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21호
	13:30~17:30	제22분과 특별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대학원생 및 학부생> 친환경 선박, 해사 데이터, 바다인문학 / 해운과 인권 좌장: 2부(해운과 인권) : 임상섭(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본관(C1) 123호
폐회 및 석식	17:30~18:30	어울림관(B2) 5층	
숙소 이동	18:30~	숙소 이동	

3일차 해양문화답사

8. 23.(토) / 07:00 ~ 14:30

주제 |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장소 | 부산광역시 일원

주최·주관 |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재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사)한국섬재단

후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부산항만공사

		1조	2조	3조
이동 및 집합	07:00~08:30	조식 후 숙소 체크인아웃	조식 후 숙소 체크인아웃	조식 후 숙소 체크인아웃
	08:30~09:00	이동(도보)	이동(도보)	이동(도보)
해양문화답사	09:00~10:30	요트계류장- 해양문화답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10:30~11:00	이동(도보)	이동(도보)	이동(도보)
	11:00~12:30	국립해양박물관	요트계류장- 해양문화답사	중식 (신선실비회집)
중식	12:30~13:00	중식 (신선실비회집)	중식 (신선실비회집)	이동(도보)
	13:00~14:30	식사 후 해산	식사 후 해산	요트계류장- 해양문화답사

개 회 사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참석자 여러분께,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는 2025년 8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성대하고 풍성하게 치러집니다.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치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고 깊은 대회라고 생각하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치러질 수 있는 배경에는 바다와 섬 세계에 대한 국내외 해양문화학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과 바다 세계 전반에 대한 융합적 학술 연구와 조사, 교육, 교류와 협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의 주제는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을 통해 바다와 인간, 인간과 바다 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다와 섬 세계의 구조적인 맥락부터 섬 주민들의 개인 생애의 맥락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섬과 바다 세계와 섬 주민들의 삶에 나타난 문화적 장치들을 폭넓게 읽어냄으로써, 바다와 섬이 처한 현실적 상황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에 따른 해문과 인문 주체들의 적응 양상 및 극복 전략 등을 포함한 관계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인류세 시대 바다와 섬 세계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섬 주민들의 능동성과 실천적인 행위 능력을 통해 섬과 바다 세계의 변동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바다와 섬 담론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해문과 인문이라는 맥락에서 양자 관계에 관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과 섬 문화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며, 해양 관련 전반의 다양한 학술적인 주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양 및 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약 2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과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참가자 전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학술대회’를 추구하고, 매년 섬과 해안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해안과 해양 관련 자원과 문화유산을 재발견하는 한편, 바다와 강, 그리고 섬을 활용하여 부산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지역 현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전체 일정은 1일차 <전체 회의>와 2일차 <분과회의: 일반분과, 특별분과>, 그리고 3일차 해양문화답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분과는 자유롭게 접수한 참가자들의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분과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양사I>, <해양사II>, <해양문화>, <해양민속>, <해양관광>, <해양사회인류>, <해양정책> 등을 포함한 매우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분과들이 포함됩니다. 특별분과는 섬과 해양 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학회들,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문화연구원의 해양문화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해양문화답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주관으로 요트를 이용한 부산 일원의 해양답사와 국립한국해양박물관을 탐방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기꺼이 환영사를 해주시는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과 그리고 축사를 해주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 조승환 국회의원님,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님, 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님, 김덕룡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님,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의 기획에서부터 조직, 홍보, 실행에 이르기까지 대회 준비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문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대회 조직위원회(주관기관)의 교수님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

사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대회 전체회의의 각 주제 발표를 흔쾌히 맡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는 바로 이러한 바다와 섬, 강, 그리고 해안, 해로, 항로에 대한, 보다 활발하고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모쪼록 이 대회를 통해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에 대한,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국내외 해양문화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번 대회가 학술 잔치의 흥겹고 즐거운 난장이 되길 고대하면서,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원장 **홍 석 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정 문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이 은 석**

(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문 해 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김 덕 룡**

(사)한국섬재단 이사장 **홍 선 기**

환영사



존경하는 해양문화학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빛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류동근입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대회의 시작을 열어주실 홍석준 도서관문화연구원장님과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국회의원이시면서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신 전재수 장관님, 국회 조승환 의원님,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그리고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한 학문적 열정으로 부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입니다.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를 맞이하여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교류의 역사였으며 이제는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은 바다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해양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님, 정문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님, 홍석준 도서관문화연구원장님, 천광산 국립목포대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홍선기 교수님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은 이번 대회의 지적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들에 걸쳐 각 분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해주실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미리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자대회가 지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소통과 융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앞으로의 연구에 값진 자양분이 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류 동 근

축 사

우리 바다와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높여오신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여러분, 제15회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조승환 국회의원님,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은석 소장님, 한국해양재단 문해남 이사장님, 장보고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님,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 한국섬재단 홍선기 이사장님,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해양문화학자 여러분, AI와 자동화의 물결 속,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와 문화에 매료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바다와 섬에 깃든 역사와 다채로운 이야기는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원천이 되어 전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강국 코리아”의 진정한 경쟁력은 결국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깊이 있는 연구와 헌신이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꿈을 꾸고 한국의 바다와 섬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해문과 인문의 관계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문화학자 대회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해양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는 뜻깊은 무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온라인 강좌 “해양문명사 마스터클래스 10부작”을 공개하여, 지난 수천년간 한반도와 세계를 잇고 우리 경제와 문화를 꽃피운 해양 실크로드의 역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의 시대는, 우리 해양산업과 문화를 더 큰 세계와 이어주는 새로운 서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주 무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80년간 수많은 해양인재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든든한 초석을 다져온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다와 섬을 빛내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5. 8. 21.

해양수산부 장관 **전 재 수**

축 사



해양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2025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류동근 총장님을 비롯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재단, 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바다를 통한 국가 성장 전략과 해양산업 발전에 매진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구와 영도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이 세계 해양수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과 해양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산업과 경제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이 치열하게 이어져온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정책과 미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대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아진 학문적 성과와 정책 제안들이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새로운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해양정책과 문화 진흥을 위한 입법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국회의원 조 승 환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해양문화학자와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0년간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국가 해양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우리 대학이 2009년 목포에서 첫발을 내디딘 이래, 매년 바다와 섬, 그리고 해양문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학문적 담론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500여 편이 넘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이는 우리 해양학문 공동체의 저력과 열정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올해의 주제인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은, 기후위기와 환경변화 속에서 해양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할지에 대한 시의적적이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오늘날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은 단순한 생활의 무대가 아니라, 역사·문화·산업·생태가 어우러진 복합적 공간이며, 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섬과 해양 연구의 거점대학으로서, 조선해양과 그린해양에너지 분야를 특성화하여 글로벌대학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조선해양기술과 친환경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도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힘써 주신 조직위원회, 공동 주관기관, 후원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바다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양문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 하 철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 이은석입니다.

이번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대학 설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10여 명의 학자들이 발표를 준비하시어 풍성한 학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45년 광복 후 해양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다 강국의 실현은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었기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80년 동안 배출된 수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를 해양 분야 선진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세 대항해시대를 이끌었던 유럽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 보아도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해양의 DNA와 문화·역사를 찾아내고 밝히는 연구들도 함께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주제로 문을 엽니다. 바다를 통한 인류 활동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연구소는 재현된 조선통신사선으로 261년만에 부산에서 오사카 왕복 항해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다를 통한 교류와 평화 유지라는 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랑케의 어록처럼, 반복되는 역사를 깨닫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석하신 해양문화 학자님들도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연구 결과가 젊은 연구자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인 부산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 8. 21.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이 은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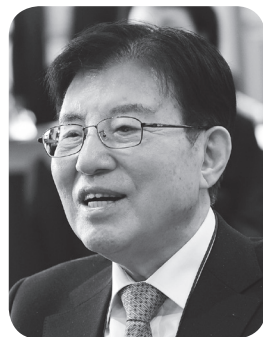
축 사

존경하는 해양문화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김덕룡입니다.

먼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5회”를 맞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부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이자 교류와 발전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이름이기도 한 ‘장보고’ 대사는, 이미 1,200여 년 전, 바다를 무대로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지금의 해양문화가 지향해야 할 정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문화는 곧 그 나라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자산이며,
동시에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적 기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의 연구는, 우리 해양과 섬이 지닌 문화적, 정책적,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 속에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자 실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섬, 바다, 그리고 해양문화가 가진 잠재력을 함께 발견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담대한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전국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의 연구 여정에 늘 푸른 바다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김 덕 룡

축 사



존경하는 해양문화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입니다.

먼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해에,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이곳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바다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넘어 우리 인류 문명과 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어 온 인류사의 뿌리입니다. 해양문화는 한 나라가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초가 됩니다.
이에, 올바른 해양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우리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의 연구는 우리 해양과 섬이 지닌 문화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우리 사회가 해양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양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바다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해양과 섬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해양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하여 학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뜻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더욱 확장시키고, 학술과 정책, 산업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해양과 섬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학문적 성취와 건강을 기원드리며, 국립한국해양
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 상 근**

축 사

존경하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관계자 여러분, 학자와 연구자, 그리고 섬과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뜻깊은 학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바다 인재를 길러온 반세기의 현신이 오늘 이 자리의 품격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는 바다의 기록과 사람의 이야기를 한데 잇는 탁월한 화두입니다. 해류와 향로, 해양산업의 데이터만으로는 바다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섬 주민의 삶, 별과 바람과 물살을 읽어 온 감각과 언어가 더해질 때 비로소 해양문화는 온전히 ‘사람의 학문’이 됩니다. 이 주제가 우리 학계와 정책, 지역 공동체를 잇는 다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섬의날 제정과 함께 설립된 (사)한국섬재단은 여러분의 꾸준한 응원의 힘으로 섬 정책의 지평을 넓히고, 섬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여는 주체로 세우는 데 이바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동은 섬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동시에 섬은 가장 앞서 해법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기반의 상호부조, 순환과 절제의 생활 기술,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축적된 ‘섬의 지혜’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한국섬재단은 여기 계신 학자·현장·정책 주체들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섬과 미래지향적 섬 정책을 설계하며, 섬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제안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2026년을 우리는 ‘섬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7월에는 신안군에서 ISISA세계섬학술대회가 열리고, 8월 8일 ‘섬의 날’은 여수에서 온 국민과 함께 기념하며, 9월에는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섬재단은 학술과 시민, 지역과 세계가 함께 만드는 연속적인 ‘지식-축제-정책’의 선순환을 통해, 섬의 가치를 현실의 제도와 산업, 교육과 문화로 구체화하겠습니다.

한국섬재단은 이러한 과제를 위해 연구와 현장 실험, 제도 개선을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섬을 대한민국의 변두리가 아니라, 전환을 선도하는 전면으로 세우는 일-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1.

(사)한국섬재단 이사장 **홍 선 기**

자료집 1 목차 전체회의 / 종합토론

주제발표 1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044

김 인 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 1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에 대한 토론문···053

김 종 태 | 한국해기사협회장

주제발표 2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056

정 문 수 |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토론 2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069

현 재 열 |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주제발표 3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071

홍 석 준 | 도서문화연구원장

토론 3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114

이 창 언 | 전 영남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116

천 광 산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토론 4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토론문··· 121

부 승 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자료집 2 목차 1분과 <해양사I> 바닷길과 해양교류

선사시대 동아시아 인간의 동물 인식 검토 - 자연환경 차이를 바탕으로 -

김 동 일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한반도와 류큐 해양교류 - 야광패와 철기를 중심으로

김 재 휘 | 국립해양박물관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와 '준구조선'

조 진 옥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 왕실 목장

서 영 교 | 중원대학교

三國時代 巨濟島에 대한 考古學的 始論

정 선 윤 | 경북대학교

탐라국사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

김 동 전·양 희 영 | 제주대학교

웅진시대 백제의 대중국 항로

김 수 태 | 충남대학교

충남 결성의 바다와 신금성

윤 용 혁 | 공주대학교

선적방식으로 본 마도 3호선의 항로와 성격

조 혁 래 | 경북대학교 대학원

'완도선'의 기항지는 제주가 아닌 진주였다.

한 정 훈 | 국립목포대학교

전통 시기 안흥량(安興梁) 해역의 선박 치패와 외국 선박 출몰

박 현 규 (朴現圭) | 순천향대학교

자료집 2 목차 2분과 <해양사II> 섬과 해양역사콘텐츠

김한경의 삼봉도 항해와 독도 실재 인식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고찰

이 효 웅 | 한국동해연구소 (사)이사부기념사업회 **김 래 규** | (사)이사부기념사업회

호남제일번(湖南第一藩), 완도 가리포진

고 석 규 | 국립목포대학교

17~19세기 전라남도 羅州牧 荷衣島 漆原 諸氏 일가의 准戶口 자료

임학성·우희정 | 인하대학교

조선후기 섬주민의 양반되기와 열녀만들기 - 거문도 김해김씨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

전 경 목 | 한국학중앙연구원

20세기 지도읍 간척으로 인한 문화변동 - 연륙교의 건설과 역간척의 대두 -

김 경 옥 | 국립목포대학교

조선과 일본의 표류민 조사기록 비교

정 성 일 | 광주여자대학교

섬 표류 사건과 기록을 통해 본 문화교류 양상

최 성 환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서해안 파시의 구조와 지역문화 비교연구: 연평도, 흑산도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배 초 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변경과 국제경제법(6) - 오월쟁패에 비추어 본 월족 확산과 법적 조망 -

성 승 제 | 한국법제연구원

RDF 기반 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구조화 가능성 검토

조 하 영 |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중고고학 콘텐츠의 대중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

박 예 리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료집 2 목차 3분과 〈해양문학〉 바다를 품은 서사

鵝溪 李山海의 바다 인식

신요한 | 충남대학교

바다와 접속하다 - 홍성민의 「관해록」 고찰

김기림 | 조선대학교

1920~30년대 ‘해양소설’의 바다 재현 양상과 구성적 공간 의미 연구

마해정 | 국립목포대학교

최인훈 소설 ‘태풍(颱風)’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고찰

박해랑 | 서원대학교

『朝鮮地誌調書』(1917) 흑산면의 지명

손희하 |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포스트인류세 기후소설에 나타난 바다와 고래의 디스토피아적 형상화

남진숙 | 동국대학교

유치환 시인의 우체통

배인환 | 창작세계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보길도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나타나는 헤테로토피아적 성격

김미령 | 조선대학교

로버트 헤이든의 시 「중간항로」와 노예반란의 서사

홍옥숙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도의 해신 비슈누(Vishnu)의 화신(化身) 물고기(mastya)에 대하여

라즈 헤먼뜨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해양문화 속 한·베 교류 양상과 K-콘텐츠 확장 모색

신춘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집 2 목차 4분과 <해양민속> 바다문화의 전통

쇄미록에 기록된 조선 중기 어식 문화 분석

채 동 렬 | 경남연구원

<청간정도(淸澗亭圖)>에 그려진 18세기 간성지역 어촌 풍경

김 도 현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

부산 범어사의 범어(梵魚)에 관한 고찰

송 화 섭 | 중앙대학교

부산 해운대, 고운 최치원의 효자차

박 말 다 | 국립목포대학교

부산 모정자소리의 대귀(對句)성

이 소 라 |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부산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 - 1960~1970년대 자갈치시장과 초량지역을 중심으로 -

이종수·박희수 | 전 중앙대학교

모방의 새로운 형식 검토

탁 경 백 | 국립무형유산원

이야기와 판소리의 공간, 바다

이 채 경 | 성균관대학교 **이 선 숙** | 이선숙 판소리 연구소

죽도(竹島, 대섬)의 어원

황 의 호 | 충남해양문화포럼

오키나와 하리 의례의 변화: 이토만 하리와 기얀 하리를 중심으로

전 경 호 | 국립해양박물관

자료집 2 목차 5분과 〈해양관광〉 섬과 해양관광의 새로운 지평

인류세 시대에 도시인의 섬살이(Island-living) 로망 - 도피인가 전환인가 -

김재경 | 조선대학교

부산시 공공캐릭터 '부기'의 해양 상징성 연구: 지역 정체성과 감성 이미지 구축을 중심으로

이영숙 |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북극권 해양관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진출 방안

이재혁 | 배재대학교

해양공간을 활용한 인간의 거주공간 구축에 관한 실험적 사례 비교

- 일본의 오션 스파이럴과 한국의 연구 비교 -

이명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강명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이순신 장군 해전지의 해상 관광 활성화 방안

김낙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의 꽃, OWS(바다수영)

김연빈 | 도서출판 귀거래사

섬사랑10호 여행기, 다도해 위에 점, 점, 점...8시간30분 '섬매경'

천기철 | 남도사진문화콘텐츠

서남해안 생활세라믹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정서경·조영석 | 국립목포대학교

자료집 2 목차 6분과 <해양사회인류> 인류세 인문학 담론

인류세 시대 바다거북과 동양 전통 대모공예

주 경 미 | 충남대학교

동아시아 마조신앙의 해양문화적 특징과 의미
: ‘마조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홍 석 준 | 도서문화연구원

한반도 도서 해안지역 태평양전쟁유적의 현황과 조사연구의 방향

김 민 영 | 군산대학교

인류세 시대, 경남 해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 지 영 | 경남연구원

바다와 인간 사이의 선물교환 : 법성포단오제 중 용왕제의 ‘헌식의례’

박 경 재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포획과 보호의 경계: 낚시 문화 속 해양 보호의 상징성과 담론

박 주 형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수산물과 음식 궁합에 관한 고찰

임 여 호 | 전남대학교어업기술연구소

간호대학생의 웰다잉 인식에 대한 연구 - 해안지역 포항시를 중심으로

정옥분·김복량 | 선린대학교

해양도시 울산 주민 건강조사 (202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2차조사

김 연 옥 | 선린대학교

섬과 어촌의 지역소멸과 지역재구성

이 창 언 | 전 영남대학교

자료집 2 목차 7분과 〈해양정책〉 섬과 바다, 지속가능한 미래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

권영섭 | 국토연구원

섬, 늪어가도 낚지 않아요: 미래 삶을 위한 섬 디자인 방향

정태균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섬·어촌 취락공간 구조와 마을안길 개선 정책 방안

신순호 | 국립목포대학교

섬(도서) 관련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스코틀랜드 섬법을 중심으로

정영선 | 한국섬진흥원

해상경계 부재와 해양개발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구조와 대응방안

박성현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임진란의 흔적, 여수 묘도(猫島) 섬을 찾아서(1)

이동원 | 선문대학교

鳴旨島 鹽場과 賑穀 需給論

배상현 | 국립창원대학교

멕시코만 명칭변경이 동해와 남중국해 등 명칭에 미치는 영향

송은희 | 명지대학교 대학원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의 해상구조물 설치

황혜정 | 독도조사연구학회

어촌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 산달도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기형 | 경남연구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영석·전정아 | 국립목포대학교

연안여객 항로의 네트워크 분석

장철호 | 한국섬진흥원

중국의 해양안보 침해 대응방안

김영기 | 명지대학교

한국 해양교육의 발전방 - 한·중·일 해양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

허영주 | 남서울대학교

자료집 3 목차 8분과 특별분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해남 송호리선 고선박 수중발굴조사

노 경 정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해양유산연구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 유 리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마도2호선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변수 추정

강 원 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 수중 발굴의 미래

진 호 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난파해역 문헌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김 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문화행사 기관협업 사례와 지속 방안

박 태 훈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과 전시 활용

김 애 경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메타버스 플랫폼(ZEP)을 활용한 해양유산 학예연구사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사례
: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 수 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5년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사례와 활용방안

신 주 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의 제작 기법 연구

강 승 희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디지털 기록화 관리 일원화 프로그램 개발

최 재 완 · 양 순 석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신안선의 열화물과 재처리 방안 연구

박 창 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 출수 닻돌의 암종 분류와 연구 방향

임 성 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중부해역 수중문화유산 탐사 현황과 과제

김 하 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료집 3 목차 9분과 특별분과 〈해상왕장보고연구회〉 장보고와 21세기II

해양사로 보는 한국사와 세계사 비교 개설

강 봉 룡 | 국립목포대학교

장보고 2.0 모델: 해양중심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 민 원 | 광주대학교

장보고의 다문화융합공동체 모델 연구

항 상 석 | 장보고글로벌재단

우리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이 준 | 인하공업전문대학

부산 기장오구곶에 수용된 불교의례적 요소

서 정 매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스틸라이프〉를 통해 본 해양 문화 공간의 변화와 인문학적 성찰

김 예 주 | 경북대학교

19세기 한국과 미국의 역사 기록에서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미

최 정 아 | 경북대학교

글로벌 협력의 상징, 장보고해

궁 인 창 | 생활문화아카데미

신라 청해진 장보고의 대구전투

김 명 진 | 경북대학교

자료집 3 목차 10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생태와 문화경관>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UAV 기반 정사영상을 활용한 섬 지역 식생조사 기법 연구

- 천연기념물 완도 주도 상록수림을 대상으로 -

황 동 규 | (주)메타솔루션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간대 면적 변화와 조류상 변화 분석 연구

- 조력발전소 및 매립 전후를 중심으로 -

양 승 빈 | (주)리프

무인섬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 원 빈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이 창 훈** | 국립목포대학교

섬정원의 감성적 전환과 체류형 관광 : 아이스테시스 관점에서 본 생활인구 확대 전략

강 병 옥 | 동아보건대학교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평가

조 영 훈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신안군 옛 돌담 보존가치에 관한 연구

김 서 연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기후 변화 시대, 토착지식을 활용한 ‘해수농업’ 사례

이 경 아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해안지역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남 무안군을 사례로

김 재 은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섬 음식,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물문화 전통과 생태지식

홍 선 기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자료집 3 목차 11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공동체기록물로 본 한국 연안 마을공동체의 20세기 생활사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동해안 한 마을의 조직과 재정운영

이 용 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식민지기 마을 임야의 공동묘지로의 변화: 울진 구산리의 사례

이 옥 부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동해안 어촌마을의 오래된 제정일치 사회 구축과 어른 대접 - 울진 구산리를 중심으로 -

송 기 태 | 국립목포대학교

1960~70년대 개발 주체로서 동중(洞中)

이 민 재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살펴본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변천과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채 지 선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자료집 3 목차 12분과 특별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 해양치유

물로 치유하기 : 세바스티안 크나이프의 발자취를 따라

크리스토프 힌들 | 독일 FOM대학교

해양치유의 또 다른 얼굴 : 절영도 절벽 식물채집과 자연치유

김혜경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센터

부산의 항구와 포구를 따라 걸어볼까?

김경화 | 창작공간 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염포생활권 사례 - 전남 고흥군 봉래면(외나로도) 염포마을 -

김희진 | 염포마을권역 현장소장

자료집 3 목차 13분과 특별분과 <부경사학회·호남사학회> 부산의 바다와 목포의 바다

고대 한일 간의 또 하나의 항로 - 오키노시마를 중심으로

이근우 | 부경대학교

對馬의 재지세력과 왜구 - 14세기 宗氏와 畠田氏를 중심으로 -

정영현 | 부산대학교

부관페리와 일본인 관광 - 포스트식민주의의 정동적 유산 -

이지현 | 부산대학교

고대 강진만 서안 지역~제주 지역 간 ‘해로’와 ‘탐라’·동음현·탐진

강승재 | 국립목포대학교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박세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일제강점기 목포지역 김 양식 현황과 사회 변화

탁현진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자료집 3 목차 14분과 특별분과 <한일관계사학회>
조선과 일본, 바다를 통한 갈등과 교류의 역사

조선은 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는가?

한 문 중 | 전북대학교

조선후기 쓰시마(對馬)의 화재와 조선의 대응 - 왜관을 중심으로

장 순 순 | 전북대학교

18세기 후반 이후 조·일 사무역과 무역품의 변화

이 승 민 | 국민대학교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유 채 연 | 전북대학교

己酉約條(1609) 이후 규정 외 일본사신의 渡海와 조선의 대응

심 민 정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근세 왜관의 의사소통 경로에 대한 일고찰 : 재판차왜를 중심으로

이 형 주 | 국민대학교

임란기 조선의 도요토미씨 인식과 그 활용

임 현 채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해사행과 왜관 : 귀로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이 재 훈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조선시대 제주지역 역관(譯官) 설치 및 운영 양상

김 나 영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집 3 목차 15분과 특별분과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섬의 토지와 어장, 그리고 교역

동북아 해상 실버로드(Silver Road)의 일그러진 원형
: 1622~1637년 기간중 가도(蝦島)에서의 은교역을 중심으로
김 태 욱 | 인하대학교

1871년 진도군의 섬 간척과 행심책
최 윤 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항 이후 조선 연해에 진출한 일본 어민의 출신 지역
이 영 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제국기 강화부 장봉도 공토를 둘러싼 인식과 갈등
남 기 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 해군의 군함 기술 도입과 제해권 연구
김 경 남 | 경북대학교

일제시기 대지주의 간척·개간 사업과 성격
최 원 규 | 부산대학교

캔에 갇힌 바다 :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과 해양공간의 재편
김 예 림 | 연세대학교

1920년대 초중반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 : 해로를 중심으로
주 지 훈 | 경북대학교

조선운송주식회사의 경영과 미곡운송
김 민 화 | 민주공원

1930년대 어선보험과 수난어선구제사업
류 창 호 | 인하대학교

자료집 3 목차 16분과 특별분과 <어촌신활력앵커조직협의회 마을연구소> 지속가능한 어촌
지역개발정책 -어촌 지역개발정책 집단지성 네트워크 구축-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

김 광 남 | 어촌신활력 해남군 송호항 권역센터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Ecomuseum> 사업모델

- ‘물고기와 조개’ 대신 ‘문화자산’으로 먹고사는 어촌마을공동체 -

정 기 석 | 어촌신활력 창원시 울티항 권역센터

어촌활성화를 위한 미래주민 부재(不在)의 해결방안

서 득 수 | 어촌신활력 포항시 이가리항 권역센터

신어촌의 풍경 - 공공예술로 바라본 부산항만과 해양산업

김 은 주 | 거제 섬도(GEOJE SUMDO)

신활력사업 주민 갈등 해소 방안

김 영 호 | 어촌신활력 순천시 용두항 권역센터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꿈 -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험과 가능성 -

박 희 광 | 어촌신활력 포항시 이가리항 권역센터

섬 지역 변화에 따른 로컬리티 구축 방향 - 고하도 사례를 통한 실천적 접근 -

조 민 철 | 목포 고하도마을협동조합

해상풍력 발전사업 이익공유 모델 설계 방안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이 승 래 | (유)메가플래닛

출렁이고 변화하는 섬 -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안 종 경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기존 유사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어촌신활력사업 이해증진

안 동 훈 | 어촌신활력 제주시 화북항 권역센터

자료집 4 목차 17분과 특별분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해역과 다중위기(polycrisis) 회복과 공존의 역사문화적 모색

수온상승과 수산 생물의 이동 - 울릉도 오징어를 중심으로 -

서 경 순 | 국립부경대학교

기후변화에 따른 근현대 수산업의 위기 : 강원도 명태잡이 사례연구

문 해 진 | 부산대학교

국내 수산업 분야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 방안 연구 : 한국어 교재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 민 경 | 국립부경대학교

포용사회를 위한 어촌의 소통 리터러시 : 언어와 공동체의 힘

양 민 호 | 국립부경대학교

해역의 위기와 회복 :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의 공존 전략

공 미 희 | 국립부경대학교

구랑위(鼓浪嶼) 도시재생과 공동체 붕괴의 해역적 함의

이 민 경 | 국립부경대학교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전환 :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의 문화적 성찰

김 창 경 · 공 봉 진 | 국립부경대학교

표류하는 시간과 초기 세계화

: 근세 표류기(漂流記)와 근세 초기 동아시아 사회의 시간 주권(主權)

신 상 원 | 인제대학교

중국 해양신앙의 정치적 재구성 -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김 경 아 | 부산대학교

자료집 4 목차 18분과 특별분과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섬과 박물관

섬과 박물관 ----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장을 위한 박물관 활용법

배기동 |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섬과 바다 그리고 박물관: 해양시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

조용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계원필경집』,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과 기록의 활용방향

임동민 | 계명대학교

신안군의 문화예술 소개

최흥철 | 신안군청

강화“섬”지리를 풀어내는 전시 콘텐츠 만들어가기

윤승희 | 강화군청

『울릉도검찰일기』의 또 다른 기록, 『울도산해록』

김소정 | 국립해양박물관

세화마을 해녀체험으로 살펴본 통한 Eco Museum 구현 공간으로써의 제주도

김윤아 | 국립해양박물관

자료집 4 목차 19분과 특별분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인류세 시대 섬과 바다 담론으로서
 쿼다 모빌리티 -인간중심주의와 이주, 다중위기의 원인과 해법-

쿼다 - 모빌리티로 본 바다와 섬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접근

김치완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 남성장사 전설에 나타난 내재적·외재적 갈등 양상의 유형과 의미

김진철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바다를 통해 본 인류세 담론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교차점

: 쓰시마 섬 사례를 통해 본 과거 재난과 현재 위기의 만남

염현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투쟁하는 섬들, 사이의 다리를 상상하는 일

- 퀴어적 시선으로 읽는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의 삶

이혜령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인류세 시대 태평양 및 카리브해 섬 국가의 네트워크 주권

고다슬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도가적 사유에서 본 섬들의 접화군생(接化群生)

김진선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열린 섬 제주, 세계시민 섬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제주 신(新) 이주 시기의 문제, 맹자의 여민(與民) 공치(共治)를 중심으로

박주영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자료집 3 목차 20분과 특별분과 <한국유라시아연구원>
강화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인천 영종도 일대의 신석기시대 제천유적

조 채 영 | 한국유라시아연구원

강화도와 요동지방 고인돌의 비교

유 태 용 | 청구고고연구원

강화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성격

석 해 인 | 한국유라시아연구원

대몽항쟁기 사상계의 중심, 수선사와 선원사

소 대 봉 | 민화협 정책위원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관음신앙

신 미 아 | 동국대학교

강화도 소재 돈대의 기본구조 및 시설에 대한 건축적 분석

이 병 건 | 동원대학교

강화지역 기독교 문화의 유입과 변용

박 아 림 | 숙명여자대학교

자료집 4 목차 21분과 특별분과 〈한국유럽학회〉 유럽의 해양과 도서지역
: 환경, 지속가능성, 지정학적 도전

EU 초외곽지역(Outermost Regions)의 섬 : 역사와 관리를 중심으로

김 봉 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서양 섬에서 태평양 섬으로

: 포르투갈 아소레스 및 마테이라 출신 노동자들의 초기 하와이 이주 역사와 배경

정 호 윤 | 국립부경대학교

바다가 가르쳐주는 인문(人文)의 지혜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 -

임 지 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Tomasz Wierbowski | EURAEXESS KOREA

생태현대화 이론과 지속 가능한 섬 개발 : GR-eco Islands 사례 분석

이 하 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자료집 3 목차 22분과 특별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대학원생 및 학부생> 친환경 선박, 해사 데이터, 바다인문학 / 해운과 인권

친환경 연료전환에 기반한 해운산업 전략적 방향성 탐구에 관한 연구

이 정 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IPCC Tier 3 기준 컨테이너터미널 환경 효율성 분석

심 민 섭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친환경 디지털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해사데이터 권리 구조와 법제 정합성(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어 상 운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친환경 해운 패러다임 전환기에서의 안전문화 다중비교 연구

정 준 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EU Data Act에 따른 해사데이터 관리에 대한 다층적 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운기업의 전략적 대응

임 하 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바다와 기후변화,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ITLOS Case 31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장 제 민 · 최 민 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바다가 만든 식탁: 동서양 해양 식문화의 교차와 확산

신 재 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 지배의 문명에서 공존의 문화로

정 지 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중요요인 우선순위도출

김 유 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친환경 선박 건조 조선소 선택 요인 분석

김 나 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VAR 모형을 활용한 Handy Size Bulk 중고선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김 현 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LNG 가격과 LNG 운임 및 금리 간의 동적 상관관계 분석 (VAR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김 준 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선내 폭력과 괴롭힘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과 시사점 분석

구 본 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선원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표선정을 중심으로)

장 유 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최근 3년간 승선실습생인권 통계 분석 및 시사점

구 동 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자료집 4 목차 23분과 특별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해양문화신진연구자>
지역 커뮤니케이션과 해양공간의 사회문화사

자본유입에 따른 주민들 사이의 이해충돌과 의미경합 : 신안군 선도를 중심으로

박 상 민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지도(智島)의 근대교육과 섬의 변화상

임 영 은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섬과 육지의 커뮤니케이션 : 목포 항동시장과 건어물 거리 중심으로

김 강 민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근대 목포 해수욕장 형성 과정과 사회적 기능

조 민 혜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전체회의

주제발표

제1주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

발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제2주제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발표 정문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토론 현재열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제3주제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

발표 홍석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장

토론 이창언

전 영남대학교 교수

제4주제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발표 천광산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토론 부승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SHIP's ACT)

김 인 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SHIP's 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요약

미국은 자국의 해군력, 상선대, 선박건조능력이 중국에 비교하여 열세임을 인식했다. 이에 2024.4.30. 상하원 의원 4명(루비오 국무장관, 켈리 상원의원등)이 미국의 해양강화 지침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후속이행법안으로 24.12.19.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선박건조와 항만 인프라법(SHIP's ACT)”를 발의했다. US Code Title 46, Subtitle V의 각조항을 개정하는 형식(ex. 53601조). 25.4.30 개정하여 두개의 법률로 나누어졌다. 주 법안(SHIP's ACT)이 있고, 부속법안(Building Ship in America ACT)이 있다.

주된 내용은 (i) 미국의 해운을 재건시키고, (ii) 미국의 전략물자 등 화물의 안전운송을 확보하고, (iii) 조선업을 부활하고, (iv) 조선소의 근로자와 해운의 해기사를 양성하고, (v) 중국의 해운조선업을 제약함에 있다.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vi) 백안관 내에 해양안보 보좌관과 해상안보 위원회를 설치하고, (vii)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 민간의 투자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 연방상선사관학교(Kings Point)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주도했고,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제1장 일반,
- 제2장 해사안전 트러스트 펀드,
- 제3장 해상운송능력,
- 제4장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미국적 선박,
- 제5장 선박건조,



- 제6장 근로자의 확보
- 제7장 세금 규정→별도의 부속법안으로 감

I. 일반

주요 내용으로 해양안보보좌관과 해양안보 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해양안보 보좌관을 임명하고, 해양안보 보좌관은 임원과 직원을 임명권한이 있다. 해양안보 위원회를 백악관 내에 설치하고, 해양산업을 담당하는 모든 연방 기관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제101조) 해상 보안 함대의 규모에 대한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 화물 우선 요구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강력한 해상 인력개발, 국가 해양 전략 및 미국 해상 운송 시스템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해사청과 해안경비대는 직접 고용할 권한이 부여되어있다(제103조). 해사청과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 법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진행 상황을 2년마다 보고해야한다. (제104조와 제105조) 연방해사위원회(FMC)는 해외 상업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만들고,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제106조).

II. 제2장: 해양안보 신탁기금

1. 주요내용

(1) 기금

제3장과 제4장에 이어지는 해운의 재건과 조선소의 경쟁력 그리고 적절한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관련하여 해양안보 신탁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01조). 이 조항은 제701조와 함께 중요한 해양안보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항공 신탁기금과 같은 신탁기금은 연례 예산 배정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교통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이 법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사청, 미국 해안경비대, 그리고 연방 해사위원회가 해양안보 신탁기금에서 직접 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해양안보 신탁기금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연례 예산 배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i) 미국 상선사관학교 (ii) 주립 해사학교 및 국가 안보 다중 임무 선박 프로그램 (iii) 전략적 상선대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된) (iv) 제11장 대출 보증 및 소형 조선소 보조금 프로그램 (v)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법안에 의해 설립된) (vi) 소형 조선소 보조금 프로그램 (vii)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viii) 운송 비용 상환 프로그램 (ix) 미국 해양 혁신 센터 (x) 상선 해운 경력 유지 프로그램 (xi) 해양 및 조선 인력 모집 캠페인 (xii) 국내 해양 인력 훈련 및 교육 우수센터 (xiii) 상선 선원 자격증 발급 및 현대화 (xiv) 기타 해양청(Maritime Administration)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

(2) 우려국가에 대한 제제

이 조항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우려되는 외국(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으로 정의됨)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대통령이 톤세(Tonnage Taxes) 및 등화세(Light Money)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제202조). 중국 소유 또는 중국 국기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수입된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진다.

III. 제3장: 해상운송능력

미국이 해상운송능력을 갖추도록 각 부서의 장관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제301조). 미국이 자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전략적 선대를 보유하는 것을 정책으로 규정한다. 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충분한 민간, 상업, 군사 해상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해상운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은 이 목표와 관련된 보고서, 브리핑, 평가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국가 화물 전략 계획에 해상 무역 및 전략적 해상운송에 대한 고려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제302조). 제303조는 외국 선박 관행; 통제 선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외국 선박 관행법(Foreign Shipping Practices Act)과 통제 선박법(Controlled Carrier Act)을 개정하여 화물 및 크루즈 선박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수행하는 외국 국가 및 외국 국적 운영자를 방지하기 위한 연방 해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IV. 제4장: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미국적 선박

1. 전략상선대-80척인 미국적 선박을 250척으로 확대함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깃발을 달고 미국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을 10년내에 250척으로 확대하고자한다(제401조). 현재 미국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은 80척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급제안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안한다.

정부는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선박을 선정하여 250척의 선단을 보유한다. 7년 기간 동안이고 두번 연장이 가능하여 21년 동안 유효하고 생애기간동안이 된다. 운송인은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선단에 넣어서 미국깃발을 달게 할 수 있다. “임시선박”의 개념을 둘 수 있다. 미국건조된 선박으로 교체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1년동안 운항협약하에서 선단에 남아있을 수 있다. 임시선박이 아닌 외국건조선박은 2029년 이후로는 선단에 들어올 수 없다.

현재 미국 깃발을 단 선박은 우방국의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면 50%의 세금을 내야한다.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면 200%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 미국에서 수리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해사안전선단과 케이블 안전선단, 전략물자상선단 등에 소속된 선박에게는 외국에서 수리를 해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도록 해사청에게 권한을 부여한다(제405조).

2. 미국 정부화물

미국정부의 화물로서 미국적 선박에 실려야하는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100%로 올라간다(제411조). 15년 이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10%가 미국 깃발의 선박에 의해 운송되어야한다(제415조). 미국적 선박은 미국의 항만에서는 대기하는 외국선박에 앞선 우선권을 가진다(제416조). 2043년까지 LNG 수출화물의 15%는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의해 운송되어야하고, 원유는 2035년까지 10%이다.

3. 규제개혁-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

미국은 국제조약을 채택하지 않고 자신만의 법제도인 선가(船價)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박이 사고 후 잔존가치가 있다면 그 잔존가치에 운임을 더한 금액이 책임제한액수이다. 미국은 외국선박의 경우 잔존가치에 운임을 더 한 액수에서 10배를 책임제한액으로 변경하고자한다. 미국선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잔존가치에 운임을 더 한 액수이다. 이러한 책임제한은 선원의 사망이나 임금채권에는 적용되지않는다(제433조).

V. 제5장 선박건조 -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

1. 조선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전략상선단 이외의 원양상선의 건조에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선박건조재정원조 프로그램을 해사청이 설치한다(제501조). 미국의 조선소와 조선소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에 유효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2025년에서 2034년까지 해마다 해사안전트러스트 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제501조). 2025년에서 2034년까지 동기금에서 소형조선소에게 연간 1억 달러를 제공한다(제502조).

연방선박금융(제11조) 프로그램을 재연장(revolving)대출기금으로 변환시킨다(제503조). 대출금과 대출보증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가진다. 2025년 기금으로 1억달러가 제공된다. 기금은 선박의 미국깃발로 환원 혹은 선박을 더 유용한 군사적 목적으로 변경함에 사용된다. 건조유보기금(CRF)은 미국선적 선박의 운항자가 선박의 매매 혹은 멸실에 기인한 수익으로 선대를 확대하거나 현대화함에 사용된다면 이연할 수 있게 한다. 위탁된 기금이 더 길게 활용될 수 있게 한다(제504조).

건조자금기금(CCF)이 길게 활용될 수 있도록한다(제505조). 미국깃발을 단 선박을 현재 소유하지않은 자라도 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부두운영자가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하고 중국산이 아니라면 미국의 해상터미널의 장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무장관에게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 해운 회사에 대한 수출 통제와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을 완화할 방법을 연구하도록 요구한다(제510조).

2. 국방부 프로그램

민간 조선소가 군사 및 상업 고객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해군 및 해안경비대 선박 설계의 상업적 모범 사례를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민간사업과 합정사업을 통합하도록 한다(제511조). 미국의 조선소 인프라, 국방 조선소 산업 기반, 그리고 해상 항만 인프라

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권한을 사용하는 실행 계획을 해군성 장관이 수립하도록 요구한다(제512조). 해군 함대의 해상 재무장 능력 개발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군성 장관에게 요구한다(제513조). 해상수송사령부에 고용된 선원의 모집 및 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장관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한다(제514조).

3. 조선 혁신 및 인프라

해사청안에 미국 해양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기술 및 제조 공정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도록 한다(제521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매 회계연도에 해양안보 신탁기금에서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국가 조선 연구 프로그램의 활동을 승인한다(제522조). 해양 인프라 준비 상태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물류 플랫폼인 LOG-INK로 인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제523조).

VI. 제6장: 인력 개발

1. 주요내용

(1) 인력 인센티브

미국 해안경비대의 선원 자격증을 소지한 상선 선원이나 미국 조선소의 직원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허용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근로자는 10년 동안 미국 선박이나 조선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선원의 경우 연간 최소 150일의 해상 근무를 해야 한다(제601조).

상선 선원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최소 10년 동안 전임으로 복무했으며, 특정 전투 지역에서의 복무로 “우수표창” 또는 기타 선원 메달을 수여받은 경우(법 시행일 이후), 다른 VA(보훈처) 혜택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군인법(GI Bill)에 따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제602조). 미국 상선의 장교 및 비면허 선원이 해군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군장교에게 허용한다(제603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연방 고용에서 비경쟁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i) 미국 상선사관학교(USMMA)를 졸업하고 모든 생도 의무 협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혹은 (ii) 미국 국적 선박에서 최소 7년간 해상 복무한 장교 또는 선원의 증명이 있는 경우(제605조). 미국 상선 해양 경력 유지 프로그램도 있다(제606조).

(2) 인력 파이프라인

해양 및 조선 채용 캠페인은 해사청이 전국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해양 산업 경력의 기회와 혜택을 홍보하는 맞춤형 채용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제611조). 자금은 해양안보 신탁기금에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제공된다. 군사 지원자와 해양 경력자 간의 채용을 연계한다(제614조). 해양 인력 데이터를 수집하게 한다(제615조). 퇴역군인이 해양 산업 취업이라는 전환을 도와준다(제616조). 조기 해양 교육 및 청소년 참여에 예산을 투여하도록 한다(제617조).

(3) 미국 상선사관학교 및 주립 해양사관학교

미국 상선사관학교 인프라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10년간 예산 승인을 정한다(제621조). 미국 상선사관학교는 미국 상선사관학교를 다른 네 개의 군사사관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사청이 학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승인한다(제622조). 미국 상선사관학교에서의 사관생도 복무기간이 연방군사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연방퇴직 혜택을 위한 자격 기간에 포함된다(제623조). 해사청에게 주립 해양사관학교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이 필요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추가적인 주립 해양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주립 해양사관학교에 해양안보 신탁기금에서 전용 자금을 제공한다(제624조). 전역군인이 4년제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상선 사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주립해양대학이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간소화된 프로그램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운영된다(제625조).

(4) 해양 면허 현대화

미국 해안경비대가 상선 선원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선원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한다(제631조).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판단에 따라 상선 선원의 문서, 만료된 면허, 등록 증명서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제637조).



VII. 제7장: 세제 조항

1. 주요내용

(1) 해양안보 신탁기금 설립

다른 교통수단은 사용자 요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용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탁기금(예: 고속도로 신탁기금, 항공 신탁기금)은 연간 예산 배정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교통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제201조와 함께 해양안보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자금원을 마련하기 한다.(부속법안 제1조).

(2) 미국 선박투자 공제

납세자가 미국에서 적격 대양 항해 선박을 건조, 재동력화(repower), 또는 재건축(reconstruct) 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33%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부속 법안 제2조). 미국의 선주 책임보험조합에 가입하면 5%의 추가 공제를, 미국선급협회에 가입하면 3%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3) 해양안보 관련 특정 지원금의 과세소득 제외

이 조항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받은 자금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부속법안 제3조): 해양안보·조선 재정 인센티브·케이블 보안·탱커 보안 프로그램·전략적 상업 선대·소규모 조선소 지원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4) 조선소 시설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이 조항은 납세자가 미국 내 적격 조선소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부속법안 제7조). 이는 민간 및 군사용 대양 항해 선박을 위한 조선소와 해당 선박에 필요한 주요 부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상선 자본 건설 기금 관련 세제 혜택

이 조항은 제505조에 따라 자본 건설 기금(CCF)에 도입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세법을 기술적

으로 업데이트한다. 또한, 기금 인출금이 중국에서 제조된 완전 자동화 화물 처리 장비나 크레인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부속법안 제8조).

(6) 학생 인센티브 지급 계약의 과세소득 면제

학생 인센티브 지급(SIP) 프로그램은 미국 상선에서 면허를 취득한 장교가 되기 위해 주립 해양 사관학교에 등록한 적격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 조항은 SIP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지급금이 학생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부속법안 제8조).

(7) 해양 연료세 균형법

이 조항은 해양 연료세 균형법으로, 대서양 또는 태평양을 연결하는 미국 항구 간의 무역에 사용되는 특정 선박이나 항공기의 공급품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대체 모터보트 또는 차량 연료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연장한다(부속법안 제10조).

VIII. 결론

이 법안은 미국의 낙후된 해운과 조선업의 부활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담긴 법안이다. 전략상선단을 10년내에 250척까지 확보하는 제안이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깃발을 단 선박이어야하므로 외국에게 기회는 적다. 그렇지만 임시선박제도를 둔다고 하므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미국선박들이 실어 나를 화물이 많아지도록 입법했다. 조선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혜택을 도입했다.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유인하고 있다. 7년이상 승선근무를 하면 미국 군인법의 적용을 받아 쉽게 취업이 가능한 지위를 얻는다. 전역군인에게 3년간 교육을 받으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한다. 선원의 대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

미국의 SHIP's ACT는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류세와 관련시켜서 보면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않는다. 해양안보기금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선박이나 군함은 친환경선박으로 지어야한다. 현행법률안의 부속규정으로 친환경선박의 경우 추가세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5년 조선과 항만인프라법」에 대한 토론문

김 종 태 | (사)한국해기사협회장

우리나라도 해기전문인력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해운, 항만, 조선, 선박관리 및 부대산업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최근 미국은 'SHIPS Act' 법안을 통해 자국 상선대 250척 건조, 자국 해기사를 양성하고, 자국 화물의 자국 선대 수송 의무화 등 해운 주권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해양력에 대한 미,중 패권경쟁에서 뒤쳐진 미국 정부의 침통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곧 입법화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선대와 해기사를 단순한 국가 산업의 일부분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 즉 유사시 병참로 확보를 위한 '제4군'으로 인식한 미국 정부의 비상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김인현 교수님은 미국의 SHIP'S ACT의 동향을 주시하며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법 전문을 번역하여 전 산업계에 배포하였고, 해운산업 자문그룹 조찬 간담회, 바다·저자와의 대화, 고려대 해상법 주간브리핑, 고려대 북극항로법 연구회 등을 통하여 동 건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여 해운업계의 대응방향 설정을 주도해 오셨다. 또한 지금은 해사산업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기에,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하며 저는 나의 전문분야인 해기사 양성에 대한 방향을 피력하고자 한다.

해양력(sea power)이라 함은, 해군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군함 및 상선의 선박 건조능력, 유사시 병참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해운산업 육성과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의 양성 및 유지 규모, 그리고 군과 민간의 국제적 네트워크 운영 능력이라 정의한다. 한 국가의 해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과 해양산업과 연관된 직업, 특히 해기사 직업에 대한 매력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를 통틀어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선 국가에서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여 해운산업을 성공시킨 국가는 일본, 영국 등 많이 있지만, 해기사를 양성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전문인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해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동안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큰 역할을 해왔으나 그 효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학령인구 저하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특수직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해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과거 1.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상선대는 약 8천 척이 침몰하고, 5만 명의 선원이 사망했으며 이는 대영제국 선원의 약 50%에 해당하였다. 또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상선 약 3천 척이 침몰하고 6만 명의 선원이 전사하여 일본 상선대의 90%가 멸실되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내전으로 국제 선원시장에서 선원공급국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태, 홍해 후티반군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국선원에 의한 국내 전략물자 수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사시 대비 상선대를 국가에서 징발할 수 있는 동원선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600여 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항 상선대 300척, 내항선 300척이라 예상하고 소요인력을 산정하면 외항 상선대 300척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승무 정원 14명 반영 시 4,200명 인력이 필요하며, 내항선 300척 운영을 위해 척당 8명을 산정하여도 2,400명, 합계 6,600명의 인력이 일시에 필요하다.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 근무 3년, 의무 승선 기간 만료 후 예비군 8년, 합계 11년간 국가 비상사태 시 인력 동원이 가능하다. 현재 매년 850명 ~ 900명 수준으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므로 동원 가능한 예비군 인력은 1만 명 수준으로 본다. 그러나 1만 명 중 해양경찰 등 공무원으로 진출한 사람이 4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동원 가능한 승선근무예비역은 6천 6백명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승선근무예비역 자원은 동원 선박 1회만 운영 가능한 인력이다. 유사시 선박과 선원의 손실 발생하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야 할 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11년간 선·기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인 자는 소수인 점을 고려 시, 동원선박의 선·기장의 소집은 그들의 애국심에 의존해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 1만 명 해기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초급 사관이 매년 1천 명 이상 배출되어야 하며, 고급 사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채용 등에 장기승선자 가점제도 도입은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육상 선박관리 전

문가가 체계적으로 육성되도록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초급사관, 고급사관, 선박 관리 전문가로 구분되는 3개의 축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한 축이라도 무너질 시 전체가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여 일본과 같이 해기사 양성 실패와 더불어 해사 산업은 - 일본의 해사산업 대다수가 싱가포르로 이전 했듯이 -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 전부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유사시 대응능력이 전무함을 북한 등 대외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전략해기사 육성을 위하여 국가는 필수선대와 지정선대에 대하여 일반선대에 대비한 선원비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지정선대의 운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아무리 저하되더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매년 1천 명 이상의 초급사관을 배출되도록 하여, 항시 1만 명 이상의 해기사를 유지, 국가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계 대학은 교육부의 동일한 관리 기준에서 벗어나 특수목적대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수부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선장, 기관장급의 안정적인 동원을 위하여 국방부는 ROTC 제도 부활 등 새로운 해군 예비원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정 문 수 |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

포유류인 인간은 주로 육지를 근거지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바다가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오래 동안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천문·우주학, 지구학, 지질학, 해양학, 기후학, 생물학, 인문학 등의 연구 성과들은 바다의 무늬(海文)와 인간의 무늬(人文)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다의 물리적 운동이 인류의 사회경제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은 태곳적부터이다. 반면 인류가 바다의 물리적 운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심지어 바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I. 바다와 인간의 관계

1. 생명의 근원

미국의 해양학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어머니 바다’로 표현했듯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다로부터 시작되었다.¹⁾ 바다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38억 년 전이고, 태양계의 행성인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약 46억 년 전이다. 지구 최초의 원핵생물은 약 37억-35억 년 전 해저의 열수공에서 출현하였다고 보는 학설이 유력하다.²⁾ 초창기 지구의 대기는 지금과 달리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에 유해한 자외선을

1) 레이첼 카슨, 이충호 옮김, 우리를 둘러싼 바다 (양철북, 2003), 22~42쪽 참조.

2) Oli Usher. "Chemistry of seabed's hot vents could explain emergence of life" (2015), <https://www.ucl.ac.uk/silva/mathematical-physical-sciences/maps-news-publication/maps1526>(검색일: 2025년 1월 18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때 유일하게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다 속이었기 때문이다.

원핵생물은 약 25억 년 전에 진핵생물로 진화하였다. 이로부터 약 15억년이 흐른 후 다세포 유기체가 나타나며,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약 4억 7500만 년 전이었다.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양서류-파충류-포유류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한다. 육지에서 생존한 최초의 동물은 폐어(부레가 폐로 변형되어 공기 호흡을 하는 물고기)와 갑각을 것이다. 폐어는 생식하기 위해 물로 되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양서류는 곧바로 진화했다. 이어서 악어 혹은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출현했다. 파충류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크고 튼튼한 알을 낳았다. 그 이후 2억 5000만 년 전쯤, 최초의 포유류가 지구상에 나타나는데, 새와 비슷하게 닮은 일종의 파충류에서 진화했다. 포유류는 온혈이었고 털로 덮여있으며 알을 낳지 않는다. 포유류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20-10만 년 전쯤이었고 현생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대륙에서 각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10-7만 년 전이었다. 인류가 농경사회로 접어든 것은 1만 년 전부터이다. 이렇듯 바다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다.

2. 지구를 둘러싼 바다와 해양지각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다는 오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과 작은 바다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의 크고 작은 바다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바다에 공급되는 물이 지구 내부에서 나오며, 화산 활동을 통해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다. 또 하나는 이런 ‘내부론’을 보완하면서 나온 ‘외부론’이다. 여기에 따르면, 바다는 미행성체가 원시 지구에 충돌할 때 방출된 휘발 성분(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해수면 아래는 대륙과 아주 흡사하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형이다. 바다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판구조론(plate tectonics)에 의해 설명된다. 이 활동과정은 지구의 지각 분열과 운동에서 비롯된다. 약 2억 5000만 년 전 모든 대륙은 판게아(Pangaea)로 알려진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 있었다. 이러한 초대륙(supercontinent) 주위의 물이 뒤에 태평양으로 알려지게 되는 바다를 만들었다. 약 2억 년 전 무렵 판게아가 따로 쪼개져서 새로운 두 개의 대륙이 나타나는데, 북반구의 것을 로라시아(Laurasia)라 하고 남반구의 것을 곤드와나(Gondwana)라고 한다. 이 두 개의 대륙들이 다음 5000만년 동안에 걸쳐 계속 분리되면서, 공룡시대 즉 쥐라기 말기 동안에는 중앙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대서양은,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떨어져 벌어지면서 약 1억 3500만 년 전 무렵에 형성되었다.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은 1억 년 전 직후에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큰 바다는 인도양으로, 약 6000만 년 전 무렵에 등장하였다. 홍해는 아

라비아 반도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약 2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이처럼 지구상의 대륙들이 서로 모이고 분리되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과 위치를 바꾸어왔던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의 지각 분열과 운동으로 인해 판 위에 놓인 대륙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유형의 지각 중 하나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인 대륙지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저의 해양지각이다. 일반적으로 화강암으로 구성된 대륙지각보다 현무암으로 구성된 해양지각이 무겁다. 두 유형이 부딪힐 경우보다 무거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을 으스러뜨린다. 엄청난 마찰과 높은 열이 발생하면서, 대륙지각의 일부가 녹아버리고 사슬형태의 산맥을 쳐올리게 된다. 또한 대륙지각의 부분들이 충돌할 때도 산맥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륙지각의 양쪽 부분이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서로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에 지각들은 부서지면서 거대한 산맥을 형성한다. 이와는 달리 가끔 두 개의 지각이 서로를 지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마찰이 두 개의 지각을 끌어당기지만, 압력이 증가하다가 두 개의 지각이 갑자기 어긋난다. 이러한 어긋나는 현상이 지진을 만들어낸다.

이상이 판구조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판구조론은 산맥의 형성 경위와 대륙의 이동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왜 태평양의 주위를 돌며 화산과 지진의 둥근 고리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판구조론은 지구가 부서진 달걀껍질처럼 왜 일련의 판으로 부서져 있는지, 그리고 이 판의 변두리에서 화산과 지진과 같은 격렬한 활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명해 준다. 지구표면의 70%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류가 경험하는 대륙에서의 지진과 화산 운동은 수면 밑의 해양지각의 분열과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온도조절 장치

바다는 주위의 지표면에서 열을 흡수하고 그곳으로 서서히 열을 넘겨주는 거대한 온도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은 지구 전체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연안 지역과 인접 영역에 보다 시원한 여름과 보다 온난한 겨울을 제공한다. 바다, 대륙, 그리고 지구 기후 사이의 상호작용은 해류의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해류는 다시 지구 전체에 걸쳐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쳐왔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서 전진과 후퇴의 기압 “대진동”인 남방진동은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날씨 결정자이다. 흔히 엘니뇨라고 불리는 태평양의 반류는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가뭄과 홍수의 원인이 된다. 북 대서양 진동은 멀리 떨어진 대륙 러시아 중심부에서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준다.

바닷물의 흐름은 네 개의 주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바닷물의 상층부를 밀고 가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햇빛이다. 햇빛은 적도 주위의 바닷물을 뜨겁게 하고 지구의 양극으로 순환시킨다. 세 번째는 바닷물의 염분 함량 차이이다. 염분의 차이는 바닷물의 농도 차이를 가져온

다. 통상 소금은 바닷물의 3퍼센트 미만이지만 염분 함량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바닷물의 농도에 영향을 주며, 바닷물의 농도는 다시 바닷물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은 태양과 강수량과 관계있다. 지구의 열대지대에서는 강우량이 많으며 이로 인해 바닷물의 농도가 떨어진다. 반면 아열대지대들에서는 열대지대보다 강우량이 적으며 햇살로 인해 수분의 증발이 일어나 농도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닷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낮으면 낮을수록 순환을 돕는다.

마지막 요소는 소위 코리올리의 힘(Coriolis force, 전향력)이다. 이 힘은 지구 자전이 가진 일탈적인 영향력을 설명한다. 코리올리의 힘은 해류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준다.

4. 바닷길 - 사람, 상품, 문화와 종의 교환

지도에서 대륙은 생기에 찬 공간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바다는 그저 텅 빈 공간으로 제시된다. 말하자면 산이나 협곡과 같은 대륙에 점점이 박힌 지리적 특징들이 바다에는 묘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도는 바다를 왜곡시킨다. 크고 작은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해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역시 대륙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공간이다. 과학자들과 최근에는 인문학자들도 해류가 강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증기와 철도의 도입 이전에 대륙을 가로지르는 강이 탐험과 교류의 대동맥으로 기능했듯이, 해류 역시 끊임없는 풍향의 도움을 받아 범선시대 동안 주된 연결도들을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류와 바람은 인간의 노동과 경제적 주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류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강과 바다, 대양을 통한 교역이 육상 교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배는 말·낙타와 같은 짐 운반용 동물보다 더 많은 화물을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속도도 더 빨랐다. 불행하게도 난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배의 빠른 속도와 적재능력이 잠재적 위험을 상쇄하였다. 수백 년이 걸렸겠지만, 인류가 인도양의 계절풍, 대서양의 무역풍, 그리고 노호하는 40도대(roaring forties)의 바람과 해류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면, 바다는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로 바뀌었다. 바다의 움직임을 통달하는 것은 선체 구조, 돛 형태, 항해용 계기와 관련된 기술 진보에 중요한 자극을 제공했다.

원거리 교역은 세계의 바다 연안을 따라 살고 있는 사회들에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규모의 종의 교환을 초래했다. 원거리 교역은 8-9세기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 권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5세기 구대륙과 아메리카대륙 사이의 교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바닷길은 16세기 아카폴코와 마닐라 사이의 태평양으로 연결되고, 17세기 노호하는 40도대를 넘어 오스트랄라시아가 연결되며, 제임스 쿡 등에 의해 18세기 환태평양 루트가 활성화됨으로써 전 지구적 네트워크가 된다.

인간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면서, 사람, 물자, 사상, 종교, 정보, 식물상과 동물군, 병원 등도 쌍방향으로 교환되었다. 지구적 규모의 바닷길 네트워크의 기폭제가 되었던 구대륙과 아메리카대륙 사이의 바닷길의 활성화는 이른바 “콜럼버스의 교환(Columbian Exchange)”을 촉진시켰다. 구대륙에서 아메리카대륙으로는 감귤, 사과, 바나나, 망고, 양파, 커피, 밀, 쌀, 말, 돼지, 닭, 양, 염소, 벌, 흑인노예와 이주민, 기독교, 천연두와 홍역, 황열병 등이 유입되었다. 아메리카대륙에서 구대륙으로는 옥수수, 토마토, 감자, 바닐라, 고무, 카카오, 담배, 칠면조, 알파카(alpaca), 라마(llama), 핀타(pinta, 열대성 백반피부염), 비성병 매독 등이 유입되었다. 해상교역로를 따라 이루어진 종교적 세계관들과 사상의 교류는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즉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였다. 세계전역에 걸쳐 수입된 질병은 그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토착민을 절멸시키기도 했다.

5. 하나로 연결된 바다 - 지구화

1800년대 이후에는 세계 바다의 통합만이 아니라 대양 항해와 대양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게 될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일어났다. 항해 기술의 진보는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 간에 연계를 심화시켰다. 특히 증기엔진은 바다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던 노동과 교역의 계절적 주기를 점차 소멸시켰으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또한 통신기술(해저케이블과 전선)의 발달과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건설은 세계의 바다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힘입어 유럽의 열강들이 팽창할 수 있었고, 얼마 안 가 다른 세력의 함대들도 해양력의 증가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 속에서 유럽의 열강 함대들과 합류하였다. 그 결과 대양을 횡단하는 제국들이 나타났고 전 지구에 걸쳐 인간의 이주를 증가시킨 복잡한 바다의 모습이 창출되었다.

증기선의 등장은 철제 선체의 도입과 더불어 일련의 과학적인 혁신이 뒤따라서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증기선의 발전에는 풀턴(Robert Fulton)의 외륜선 도입 이후, 풍력과 증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혼합선(hybrid ships)을 거쳐, 스크류 프로펠러(screw propeller)와 복식기관(compound engine)의 도입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부정기선에서 정기선으로의 발전, 배송예정표의 도입과 표준시 책정의 길을 열었다.

여러 세기 동안 바다는 사람과 상품의 수송로였다. 제트기가 등장할 때까지, 원양여객선은 주된 여객 운송 수단이었다. 대체로 1800년대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로 가는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 말하자면 지구적 규모의 사람의 이동은 바닷길을 통해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래 사람의 이동은 제트 비행기로 대체되지만 말이다.

1960년대 이후 사람의 이동은 항공 운송으로 옮겨갔지만, 대용량 화물은 여전히 해운의 몫이다.

20세기 마지막 25년 동안 해상 운송의 특징은 이른바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로 압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화는 여행 가방에 바퀴를 다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로 알려진 금속상자 속에 포장 화물을 넣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 혹은 두 개의 기본 크기로 구성된 표준화된 단위들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 컨테이너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항만 비용과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었다. 적재는 단순화되었다. 이어서 컨테이너는 최소한의 교환과 작업, 혹은 인터모달리티(inter-modality)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육지와 바다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컨테이너와 인터모달리티는 이전에 비해 빠르고, 훨씬 규칙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화물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산화, 항공 여행, 고비 풀린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오늘날 지구적 연결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컨테이너는 완제품 혹은 반가공품 및 미완제품의 물류에서 지구적 연결성을 실현시킴으로써 지구화를 가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컨테이너화는 항만과 선박이 컨테이너만을 위한 운반 기구와 수송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들은 운송 체인의 모든 국면들이 체계적으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때만이 진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 백만개의 컨테이너 위치의 추적, 그리고 그것들의 분배와 회수를 위한 계획을 위한 수단이 IT기술로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모달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송의 세 가지 다른 유형들(선박, 철도, 트럭) 사이에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컨테이너화는 이른바 “글로벌 소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도난의 위험, 적하역 시간. 그리고 기타 간접비용을 줄였던 컨테이너화는 그만큼 해운 운임비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운임 비용은 소싱(해외 구매)과 판매에 관한 경제적인 결정에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구매의 대표적인 인 용 사례는 바비 인형이다. 바비 인형의 머리카락은 일본에서, 플라스틱은 대만에서, 옷은 중국에서, 금형은 미국 또는 유럽에서 만들어지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및 중국에서 조립된다. 조립된 완제품들은 바다를 통해 홍콩으로 운송되었으며, 이곳에서 취합된 인형들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운송되었다. 컨테이너화는 지구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구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6.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바다에서 활동하였지만, 바다에 대한 전면적인 독점권을 천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해양은 자연법에 의해 만인이 공유하는 것이며, 공기와 마찬가지로 해양의 사용은 만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있다”는 공해의 개념을 처음으로 뒤흔든 것은 1494년과 1529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체결한 토르데시야스조약과 사라고사조약이다. 구대륙과 아메리카대륙 사이의 바닷길 개척에 앞장섰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의 바다를 양분하고 바다에 대한 독점권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지배에 도전하였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해양질서의 재편을 위해 공해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네덜란드의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몰루카 제도에서의 포르투갈의 바다 공간의 지배권을 부정하기 위해 바다 공간은 만민에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른바 ‘자유해’를 주장했다. 1세기 뒤 같은 나라의 코르넬리스 폰 바인케르스훅(Cornelis van Bijnkershoek)은 공해(公海)가 자유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한 나라의 바다 공간에 대한 권리, 즉 영해(領海)를 주장했다. 그는 영해의 기준으로 연안 방어 대포의 사정거리인 3해리를 제시했다. 18세기에는 “바다의 자유가 교역의 자유다”는 슬로건 하에서 자유항행의 담론이 지배하였지만, 19세기가 되면 유럽의 국민국가들이 해양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면서 바다라는 공간은 국민국가의 주권이 투사되는 정치공간으로 변한다. 바다 공간에 대한 재판권(imperium)의 개념이 지배권(dominion)의 개념으로 대체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대체로 20세기 중반까지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은 교역을 위한 항해권과 연안 수역에서의 어업권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전개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이래 바다는 대륙들 사이에 원료와 상품을 정기적으로 나르는 단순한 수송로가 아니다. 어업권 이외에 바다에 내재하는 부의 원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은 20세기에 바다의 광물자원을 발견하면서 한층 더 복잡하게 제기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류는 바닷물 속의 광물자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발은 해분(海盆; ocean basins)에서의 석유매장층의 발견 때문이었다. 해저자원을 둘러싼 자국의 권리를 인식한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9월 미국이 자신의 주변 대륙붕에 속한 자원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이어 곧 멕시코와 중앙 및 남 아메리카 국가들의 배타적 권리 선언이 뒤따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결국 1950년대에 새로 구성된 유엔은 해양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대양저(大洋底; ocean's floor)에서의 망간 단괴(團塊)의 위치였다. 대잠수함 전투방식의 개발과 맞물려 해저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이 대양저에 이러한 단괴들이 산재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 단괴들을 분석해보니, 다량의 망간만이 아니라 구리, 철, 니켈 같은 다른 광물들이 함유되어 있었다. 더욱이 과학자들은 이런 광물자원이 대륙에 비해 대양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저자원개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조심스런 대화가 곧 공개회의들로 이어졌다. 이런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해양법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Law of the Sea, 1982년)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준한 이 조약은 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로 확대하였으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신설하였다. 물론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며, 연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의

허가 등을 규정하였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국민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이처럼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은, 바다가 상품 수송로의 기능에 국한된 20세기 중반까지는 영해가 3해리로 국한되는 등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였다. 반면, 해저자원개발이 현안으로 떠오른 20세기 중반 이후 바다를 둘러싼 담론은 영해의 12해리 확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신설 등 공해의 감소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7. 바다와 인간의 관계 역전 - 환경에 대한 관심

동물성 자원이든 광물자원이든 해양 자원의 입지와 이용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일부 과학자들과 최근에는 일부 역사가들도 인간과 바다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00년 무렵까지도 인간이 크고 작은 바다를 여전히 생명과 재산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지난 한 세기 동안이 지나면서 인간은 바다에 대한 주된 위협 중 하나로 등장했다.

어업은 관계 변화를 알려주는 최초의 산업 중 하나였다. 1800년대에 포경업이 수많은 고래들을 멸종 직전 상태로 몰아넣었지만, 그보다 작은 다양한 바다 생물이 유사한 충격을 겪게 되는 것은 다음 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950년경 어업은 강력한 저인망 어선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데만이 아니라 물고기 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 이런 발전은 어획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의 어류의 비축량을 급감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어업 남획이 가져온 결과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장기적인 손실을 증가시켜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지구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세계의 바다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소는 해양오염과 부영양화이다. 화학 오염물질, 플라스틱, 오수, 농업 침출수 등이 세계의 바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 그런 오염 물질들이 먹이사슬로 들어가 결국 어류의 소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일단 먹으면, 오염물질들은 암과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어류 전체가 하나씩 사멸하고, 그리하여 지구 전역에 걸쳐 기근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이다. 또한 바다의 오염은 연안 지역을 따라 장기적인 조류 대증식에 기여하기도 한다. 주기적인 조류 대증식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북해와 같은 일부 해역에서는 수면의 약 5 퍼센트를 조류가 뒤덮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위험 물질의 운송이 환경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조선과 석유시추선들은 주된 위협의 또 다른 원천이다. 해상 유출과 사고로 석유가 끈적한 “유막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바닷새”와 함께 수백 또는 심지어 수천 평방마일의 바다와 해변을 뒤덮어 동물을 질식사시키고 어업과 양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바다에 대한, 그리고 따라서 인간 생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위협은 소위 온실효과이다. 간단히 말해,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권 내의 기온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극지방의 빙원을 느리지만 서서히 녹이게 되고 결국 바다 수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온 상승이 실제로 인간이 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대기권 내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그에 수반하여 세계의 마지막 열대다우림 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림벌채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증가하면서 그것이 태양열을 더 많이 잡아두게 되고 결국 빙원을 녹이는 것이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바다에서 살아가고 모험하였던 사람들을 위협하였던 것은 바다였지만 오늘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치유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행위자는 인간이다. 인류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질학적인 시기, 즉 인류세(Anthropocene)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 역전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과 바다 사이의 관계는 최근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제 인간은 바다 세계에 대해 경외감을 갖지 않으며, 인간은 바다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척도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인간이다.

II. 학제적 연구 전통의 복원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인문학은 바다와 관련된 여러 학문의 성과와 상호 소통하는 작업 즉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근대 이전의 인문학은 학제적 연구를 당연시하였다.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을 계기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분화와 더불어 학문(science)의 의미가 학문일반에서 자연과학(과학科學의 의미는 분과학문의 하나라는 말이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학문의 방법론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전범으로 삼게 된다. 이리하여 자연과학은 학문의 전범이 되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자연과학과의 학문 방법론을 모방하거나 자연과학과는 구별되는 학문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학문은 크게 보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경계가 분명하게 되고, 각 학문영역의 세부 학문들 간의 분화가 심화된다. 이리하여 오늘날 학문의 혁신은 학문들 간의 소통을 주장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e), 범학제적(trans-discipline)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학혁명의 성과와 전개에 따른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학문 방법론의 발전보다는 수기와 치인이라는 목표에 따라 불기(不器)의 전통이 강하였다. 이런 전통은 서학의 접촉과 내재적인 학문론의 성숙에 따라 기(器)의 학문을 수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통합적 학문전통이 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서구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라 서양의 학문론이 근대 이후의 대세가 되고 대학의 학제도 서양의 대학을

모델로 보편화된다. 따라서 동양에서도 서양의 학문론이 안고 있는 과제 즉, 학문들 간의 소통이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래된 미래’처럼 과학혁명 이전 동양과 서양의 학문론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연구의 상호관련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양의 학문론이 그러했다. 예컨대 『대학』의 3강 8조는 인간 세계의 학문 방법론을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세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길은 밝았던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하나가 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는 데 있다.³⁾

옛날에, 밝았던 덕을 천하에 다시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안락하게 하며, 그 집안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으며,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되게 하고, 그 뜻을 정성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혜를 이룬다. 지혜를 이루는 것은 사물에 접하여 사물을 연구하는데 있다.⁴⁾

대학의 8강(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서, 인간세계의 원리는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서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자연세계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는 『주역』이다. 『주역』의 “천문을 살펴 변화를 알아내고 인문을 살펴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⁵⁾는 말이나, “위를 올려다보고 천문을 살피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지리를 알아낸다”⁶⁾와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⁷⁾는 구절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의 법칙의 상호 연관성을 함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천지인의 3재 사상과 천도·지도·인도의 상호관련성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정도전은 천지인의 상호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요약하였다. 그는 “일월성신의 천의 문이고, 산천초목은 지의 문이며, 시서예악은 인의 문인데 천은 기로, 지는 형으로, 인은 도로 말미암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더 나아가 “문은 도를 싣는 그릇이니, 인문이라 하는 것은 그 도를 얻

3) 이기동 역해, 『대학·중용 강설』(대학, 경일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21쪽.

4) 위의 책, 31쪽.

5) 이기동 역해, 『주역강설』, (산화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341쪽

6) 위의 책, (계사 상, 제4장), 865쪽

7) 위의 책, (계사 하, 제 10장), 979쪽

어 시서예악의 가르침을 천하에 밝혀, 삼광의 운행을 따르고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리면, 문이 성함에 이르러서 극에 달한다”⁸⁾고 인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문의 원리가 천문과 지문의 원리와 합치된다는 설명은 다름 아닌 학문의 학제성과 학문의 학제적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학제적 연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근대 과학혁명 이전의 학문적 전통을 복원하는 단순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양의 학문적 전통에서는海道(海道)나 해문(海文)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필자는 천지(天地)의 원리뿐만 아니라 바다(海)의 원리를 더해 천지해인의 원리와 학문적 성과가 상호 작용하여 전개되는 것이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바다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바다인문학」은海道와 바다의 무늬와 관련된 학문적 성과와 상호 소통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근대 이전의 학제적 연구 전통의 복원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작업이다. 동양의 학문론에서 천지인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海道와 인도나 해문과 인문의 관련성에 대해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바다인문학」은 학문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Ⅲ. ‘바다’ 인문학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은 바다의 물리적 운동이 인류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과 인류가 바다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과 인류가 바다의 물리적 운동을 이해하고 심지어 바다에 영향을 주는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방법론은 학문 간의 상호소통을 단절시켰던 근대 프로젝트의 폐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며 특히 전통적 학문 방법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와 관련된 학문적 성과를 인문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근대의 바다와 관련된 담론(대표적으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은 근대 프로젝트인 진보와 진화에 기여하였고, 세계의 중심과 주변의 양극구조, 가치의 일원화·균질화, 지배와 종속에 기여하였다. 반면 이 글에서 주목하는 21세기 바다와 관련된 담론은 탈근대적인 전망, 즉 진보와 진화론에 대한 반성, 관용과 공존, 보편다양성의 전망을 제시한다.

중국의 고대사상가인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上善若水)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물은 선하여 만

8) 정도전, 『삼봉집』, 서문, 국사편찬위원회, 1961.

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므로 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이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이다.⁹⁾ 왜냐하면 모든 물은 바다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통감절요』에서도 유사한 문구를 찾아낼 수 있다. 진(秦)나라의 경계인이었던 이사(李斯)는 진 시황에게 인재 등용의 관용을 건의하면서 “강과 바다는 작은 냇물을 받아들였기에 능히 그 깊이에 도달하였다”(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중국의 후세 지식인들은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너그러움이 거대하다”(海納百川 有容乃大)라는 통감절요의 문구를 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오션(ocean)이나 해양이라는 용어에서도 중국의 사례와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어의 해양에 해당하는 오션은 그리스 신화 오케아누스(Oceanus)에서 유래한다. 그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그의 여동생 테티스와 결혼하여 3,000개에 이르는 강을 생산한다. 바다는 모든 강들의 근원인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대지를 둘러싼 가장 큰 강으로 인식했다.¹⁰⁾

그러나 우리말의 바다는 훨씬 간명하며 함축적이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다인 것이다.¹¹⁾

필자는 노자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다는 최고의 선’이라는 ‘상선약해(上善若海)’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바다는 만물의 근원이자 공생과 소통의 새로운 질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최고의 선이다. 21세기 바다와 관련된 담론은 상선약해로 대변되는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비전에 서면, 진보·진화론을 대체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하나의 체제라는 인식 속에서 관계론적이고 유기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바다와 관련된 많은 학문적 요소들은 그 자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필자는 〈방법론적 해양도시〉를 통해 이런 점을 아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¹²⁾

이것은 그 자체가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은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경계에 포함된

9) 양방웅, 『초간 노자』 (예경, 2003), 95쪽.

10) N.G.L. Hammond and H. H. Scullard (eds.),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744.

11) 신영복, 강 (돌베개, 2008), 289쪽.

12) 정문수, 류교열, 박민수, 현재열, 『해양도시 문화교섭연구 방법론』 (선인, 2014), 58-59쪽, 229쪽 참조

다고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만이 아니라 우주학, 생명과학, 지구학, 지질학, 기후학, 해양학, 생태학 등 바다의 운동과 관련된 자연과학과의 성과를 인문학적 개념 및 범주로 재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이해와 세계분석의 틀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작업은 어쩌면 바다와의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인문학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

맹자는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제24장에서 바다를 관찰하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에서 물을 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물을 설명하기 어렵다. (작은 물은 큰물에 비하면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물을 관찰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봐야 한다. (물의 양과 깊이에 따라서 물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와 달에는 밝음이 있으니 빛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다음으로 흘러가지 못한다.¹³⁾

그런데 맹자의 바다를 관찰하는 법은 중력이나 광학의 원리로 설명해도 서로 통한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바닷물의 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조석현상은, 달이 자기보다 무거운 지구를 끌어당기지는 못하지만 바닷물은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달에서 가까운 쪽과 먼 쪽의 바닷물을 서로 다른 정도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파도가 출렁거린다. 한편 인간의 맨눈으로 지각되는 파장 범위를 가진 빛, 가시광선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 보라색이다. 가장 크고 낮은 물인 바다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장이 긴 붉은색이나 노란색은 보통 수심 5m 이내에서 흡수되고, 파장이 짧은 푸른색은 더 깊이 진행하여 일부는 물 입자들과 부딪혀 산란한다. 그래서 큰물인 바닷물은 더욱 파랗게 보이고, 얇은 물인 개울물은 그다지 파랗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가치인 관용과 보편다양성을 지향하면서 또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는 시도이자 모든 학문의 성과를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바다' 인문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음직하다. 그것은 결정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기 보다는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이며,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정적인 체제가 아니라 불규칙하지만 유연하고 역동적인 체제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카오스적인 상태를 뜻한다.

13) 이기동 주해, 『맹자강설』 (성균관대 출판부, 2010), 646~648쪽.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현 재 열 |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본 발표는 인간이 바다와 맺는 관계의 근원성을 제시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해명과 천착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닿아있음을 밝히고, 이를 구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바다’인문학임을 인식론적·방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바다와의 연결성이 자리하기에,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천착을 사명으로 하는 ‘인문학’의 당연한 일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은 ‘육지에 중심을 둔’ 인간 사회의 오랜 진화 과정에 맞추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 인간 및 사회 중심으로 사유하는 데 익숙해졌고, 이런 사유에 입각한 접근은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얼마간 부적합하다. 오랜 기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개조하여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육지와 달리, 본격적인 대양 진출의 기간이 몇 세기에 불과한 바다에서는 인간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관계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발표문에서 밝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서 “역전”이 발생했지만, 지표면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적어도 지구 표면의 작용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바다에서는 이런 수십 년 정도의 “역전”조차 육지에서의 수천 년 문명과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바다의 관계에 접근하여 인간 본성과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해명의 한 축을 맡고자 하는 ‘바다’인문학은, 오랜 육지 문명과 삶 속에서 구축된 인간 중심의 전통적인 인문학의 인식적 기초에서 얼마간 시선을 달리하여,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바다)을 적어도 균형 잡힌 시야에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바다’인문학은 인문·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방법론까지 포용해야 하고 그 성과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바다를 무대로 전개되는 인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 온 여러 실용 학문들과 그 성과들, 특히 공학적 성과들(바다에서 인간의 삶은 이 공학적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까지도 적극 포용해야 한다.

발표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의 시선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처음 ‘해항도시문화교섭’ 연구를 시도하고 결국 ‘바다’인문학의 제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발표자의 시선



은 바다와 관계를 맺는 인간과 인간 사회로부터 출발하여 결국 바다 자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발본적'이고 '계몽적'이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제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좀 더 진전된 고민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바다'인문학이 "학제적, 범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렇지만 '바다'인문학의 좀 더 설득력 있는 확산을 위해서는, 그 구체적 연구 수행의 사례와 실제 적용된 연구 방법의 소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바다'인문학의 "학제적, 범학적" 연구의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구체적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위 질문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 발표자는 새로운 연구 테마로서 북극해 항로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북극해 항로 연구와 '바다'인문학과의 관계를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¹⁾

홍 석 준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지중해에서 최초의 문명 세계가 탄생한 이유는 모든 것이 모여드는 지중해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쉽게 설명된다. 지중해는 세계의 역사가 집약되는 곳이었다. 지중해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교환된 ‘선물’은 재앙일 수도 있고 은총일 수도 있었다.”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의 기억』(2006) p.53. 중에서

1. 머리말: 자연/인간 관계 전복의 변증법을 위한 문제 제기

“송이버섯은 언제나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특정 장소에 존재한다. 송이버섯은 나무와 공생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척박한 곳에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²⁾

애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2023) 중에서

인류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탄생 이래 지중해를 포함한 바다는 인간의 삶과 역사, 사회, 자연 사이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킹의 현장이었다. 바다는 자연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선물교환’ 체계가 생성, 전파, 유포, 소비되는 거래와 교역의 문화 공간이자 장소이다.

1) 이 글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주최의 “2025년 섬 인문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1826549>>

자연과 인간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혹은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반려’와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고양이의 인간에 대한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양이(비인간 ‘반려종’으로서)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다가온 문화생태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례1〉 고양이의 인간에 대한 시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어느 날 욕실에서 씻고 나와, 옷을 벗고 있는 그를 쳐다보는 고양이의 시선을 발견했고, 그 시선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³⁾ 고양이의 시선에 대한 데리다의 이 경험은 그의 책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에 등장한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인간의 시선이 늘 인간중심주의적(anthropocentric)이었다.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 또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데리다의 경험은 동물에 대한 이러한 낡은 인식을 뒤집어버렸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그가 느꼈던 당혹감은 ‘동물 시선’의 주체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고양이가 시선의 주체가 되고, 인간은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데리다는 “동물이 별거벗은 나를 본다”, “고양이와 함께 놀 때, 고양이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고양이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주체와 시선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⁴⁾

보통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받을 때, 즉 그 시선의 주체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일 때 타인의 출현 그 자체만으로 자아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인간의 출현은 고양이나 새가 출현한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못난 행동, 이를테면 열쇠 구멍으로 누군가의 방을 훑쳐보고 있을 때, 누군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남의 방이나 엿보는 놈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를 것이다. 이 시선은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은 인간만이 이러한 시선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동물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쳐지는 생각하지

3) 자크 데리다, 최성희, 문성원 역, 2013,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겨울 76호. 임은제, 2022, 『데리다의 동물 타자』에서 재인용.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발가벗은 내 모습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반히 바라보던 고양이.” 데리다는 〈그러므로 나인 동물(L'Animal que donc je suis)〉에서 벗은 몸을 집요하게 응시하던 고양이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한 자신의 색다르고 독특한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다.

4) 출처 : 주간기독교(<http://www.cnews.or.kr>)”

않는다.

이 점에서 고양이의 시선에 대한 데리다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의식하는 비인간과 반려종을 포함한 타자들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리다의 고양이처럼 인간을 응시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떠올리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는 고백에 주목을 요한다(고병권 2020).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용어는 살아 있는 비인간의 개별적인 존재를 지칭하지 않고 이를 단일한 하나로 묶어버리는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데리다는 비인간 타자의 존재로서의 위치와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동물 타자’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데리다에게 ‘동물성’(animality, bestiality)도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괴물과 같은 짐승성이 아니라 인간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거나 의미화할 수 없는 인간 이성 너머의 어떤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임은제 2022).⁶⁾

데리다는 『동물 그러니까 나인 존재(L'animal que donc je suis)』에서 어느 날 마주친 반려묘의 응시에서 기인한 낮섬에서부터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주체는 이렇게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낯선 타자를 맞아들임으로써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에게 오염된 채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무조건적 절대적 환대로 나아갈 수 있다.

5) 고병권 2020 참조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005250300115>. 한편, 임은제는 자신의 저서 『데리다의 동물 타자』에서 동물에 대한 혐오 시선에 관하여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문제 제기한다. 첫째,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비인간 타자로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동물에 관한 논의라는 점이다. 둘째, 동물권을 주장하는 동물해방론자들과는 사뭇 다른(철학적)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간중심주의 비판의 시작점에 위치한다고 평가되는 데리다의 후기 사상을 개괄하고 있다는 점이다(임은제 2022, 한의정 발제문: 1을 참조해서 재구성).

6) 데리다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타자론을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 소위 ‘윤리적·정치적·생태학적 전회’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그는 법, 정치, 환대, 주권, 마르크스주의, 동물 등을 주제로 다루면서 의식적·이성적·언어적 코기토(Cogito)에서 생태학적·신체적 코기토(Cogito)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적 에고(ego)에서 유기체 일반의 에고 개념으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해러웨이는 이러한 데리다의 관점과 입장에 비판적이다. 데리다의 유기체 일반의 에고 개념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해러웨이의 이런 거부하는 그녀의 ‘반려종’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으로 연결되어 급진적인 전회를 구축한다. 데리다는 ‘그러면 동물은 응답했는가’ 하고 물으며 동물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진전시킨 바 있다.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응답’과 ‘반응’이라는 구분을 둔다. 인간은 언어로써 소통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인 데 반해, 동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만 하는 일종의 ‘동물 기계’라는 것이 전통 철학의 관점이다. 데리다는 이런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소통 가능성을 탐색한다. 데리다에게 이런 생각을 할 계기를 제공한 건 자신과 함께 사는 작은 암고양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아침 고양이가 욕실에 따라 들어와 벌거벗은 데리다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데리다는 그때 고양이의 깊은 눈을 보았다면서 ‘그 눈이 데리다 자신을 비추는 첫 번째 거울이라면 어떨까’ 하고 묻는다. 전통 철학이 동물의 시선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물음은 획기적인 데가 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데리다가 여기서 물음을 더 전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데리다의 말을 되받아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철학자는 동물의 말에 응답했는가?” 해러웨이가 보기에 데리다는 고양이의 응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만일 데리다가 고양이의 초대에 더 잘 응답하기를 원했다면 말이 아닌 방식으로 고양이에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한다(고명섭 2020 참조).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49048.html>

데리다는 동물 타자의 목소리에 최초로 응답한 사유자로서, 배제된 채 끝없이 유령 또는 괴물처럼 출몰해 온 동물 타자의 자리를 자신의 논변을 통해 추적하고 성찰한다. 살아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철학의 은폐 아래 철학의 기원이 되는,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동물 타자의 온당한 자리를 데리다의 설명을 통해 철학사 전체를 다시 사유하며 구성해 본다. 데리다는 단지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 말한다. 사회와 정치에서 가장 취약한 희생의 자리를 맡는 자들로서, 주로 여성, 아이, 노인, 난민, 대량 학살의 대상자들이다(임은제 2022: 20-21 참조).⁷⁾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지식과 지성, 역사, 문화, 사회, 생태를 포함한 ‘인문 지형’이 요동치듯 급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늘날 지구의 재난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힘을 모아도 손쓰기가 어려운 초국적,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재난으로 다가왔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전 인류의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인간, 사회, 문화, 역사, 환경, 생태 등의 매우 방대한 주제를 현대에 가장 시의적절하고 흥미로 우면서도 의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아내는 것 역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은 물론 ‘비인간’⁸⁾과 관련된 문화적, 생태적 맥락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주된 요소로 다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인간 관계의 재정립, 또는 자연/인간(문화) 관계 전복의 변증법적 전회(또는 전환)가 그것이다.⁹⁾

7)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데리다가 자신의 고양이들 통해 타자로부터 시작하는 응시의 자각을 깨닫는 것처럼 또 다른 고양이의 응시를 소개한다. 이 고양이는 실험실의 실험 대상이 되어 원심분리기 안에서 돌려져 파편화되고 털이 찢겨진 채 분리기 밖 인간을 고통스럽게 응시하는 고양이이다. 이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이 고양이의 얼굴에는 레비나스(철학자, 윤리학자)조차 부인하고 거절한 동물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표정이나 느낌의 기능이 수행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철학사 전체는 이를 부인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온갖 산업적 착취의 구도 속에서 동물을 실험하고 착취할 수 있었다(임은제 2022: 107 참조하여 재구성).

8) 데리다가 정의한 ‘자전적 동물’과 담쟁이덩굴이나 송이버섯(칭 2022), 소나무 등의 식물들을 포함한 ‘타자들’(테스콜라 2022)을 지칭한다. ‘자전적 동물’이란 데리다가 인간 이외의 비인간 유기체에 자아의 의미를 허용하기 위해 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는 비인간 타자(non-human other)에게 나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전적 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칸트는 자전성, 자기성이라는 개념 혹은 용어를 오직 인간에게만 허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 자전적이라는 단어 뒤에 동물을 놓음으로써 동물뿐만 아니라 유기체 일반이 자신의 내적 생명 안에 자전적 기록과 생태학적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데리다의 자전성, 자기성을 포함한 ‘자전적 동물’의 의미는 생물학적이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된다(임은제 2022: 286 참조). 한편,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경계에 있는 자들의 전복적인 형상을 통해 자연/문화, 여성/남성, 동물/인간, 기계/유기체 등의 온갖 이분법과 대결해 왔다(심귀연 2024; 최유미 2020; 슈나이더 2020 참조). 그의 대표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인 「사이보그 선언」은 우주전사 일색이었던 사이보그 이미지를 여성-기계-동물 하이브리드로 재형상화하면서 페미니스트 사이보그의 가능성을 열었다(출처: 교수신문(<http://www.kyosu.net>)).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3340>

9) 여기서 예컨대 송이버섯 채취(칭 2023)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그 구도를 비판하는 논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칭 2023 참조). 이러한 담론의 생산과 유포, 소비 과정에서 인간에 못지않게 반려동물이나 식물 등의 비인간 존재들 또는 반려종들이 소중한 존재로 출현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의 폐허 속에서 송이버섯과 송이버섯 채취하는 사람들의 문화생태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2>는 히로시마 원폭 풍경 속의 송이버섯의 문화생태적 특징과 의미에 관한 좋은 예를 제공한다.

〈사례2〉 히로시마 원폭 풍경 속의 송이버섯

자본주의적 파괴와 다종의 풍경 속에서 협력적 생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파괴됐을 때,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생물이 송이버섯이었다고 한다.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로 핵폭발이 일어난 이후에도 바지런하고 탄력 있는 균류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한다. 황폐한 숲에서 송이버섯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풍경은 현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세계의 황폐한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인간이 만든 폐허에서는 무엇이 살아 남는가? 송이버섯은 불안정성을 다루는 전문가인데, 이 버섯을 채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버섯 채집인들은 정규직을 구하지 못했거나 원하지 않거나 자연의 탁 트인 공간에 혼자 있는 ‘자유’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자본주의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송이버섯 무역을 매개로 어느 정도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다. 그들은 주변부 자본주의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다.

이 시대의 인간 삶과 버섯의 생태가 주는 메시지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경험이 일상이 된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겨냥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람과 사물은 언제든지 자본의 필요에 따라 버려질 수 있다. 사람과 사물이 소외됨에 따라 “풍경은 단순화되고, 단순화된 풍경은 자산 생산 후 유기된 공간, 즉 폐허로 변한다”(칭 2023: 30).

인간은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붕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다. 진보와 붕괴에 관한 이야기도 협력적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칭 2023: 49).

자본주의가 자연 풍경을 대대적으로 파괴할 때, 우리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기획 바깥에 있던 것



들이 오늘날 왜 살아남았는지 질문할 수 있다.¹⁰⁾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송이버섯을 포함한 생태환경과 관련된 가장자리의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이런 질문이 모든 것의 방향을 뒤집어,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을 핵심적인 것으로 보도록 이끌지 모른다(칭 2023: 51). 하지만 진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눈을 멀게 했다.¹¹⁾ 진보의 이야기 없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삶이 얹혀 있는 방식의 ‘열린 배치’를 그려내야” 한다.¹²⁾ ‘열린 배치’가 많은 종류의 시간적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서 합쳐지기 때문이다(칭 2023: 24-26, 49-52).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안정한 생존을 통해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불안정성이란, 우리가 다른 존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바다와 섬, 섬과 바다를 포함하는 ‘물’의 세계(바다와 육지의 만나는 지점으로서 섬 지역과 해역 세계 포함)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특징과 의미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섬 담론은 새로운 특징과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과 해양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섬과 바다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제고를 촉구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섬과 섬사람들에 대한 천시와 하대, 무시, 차별 등의 일반 인식과

10) 송이버섯 덕택에 송이버섯이 자라나는 ‘숙주나무’는 비옥한 부엽토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 대가로 곰팡이는 숙주나무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 변형적인 상리공생 때문에, 인간의 송이버섯 채배는 불가능했으며, 자연산으로만 생산되고 채집되었다. 송이버섯은 인간에 의해 구축된 플랜테이션 농장의 환경 조건에 저항하고 거부했다(칭 2023: 85 참조). 인간은 불확정성으로 버섯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문화’(natureculture)(해러웨이 2019, 2023)의 유산을 물려받았다(칭 2023: 95).

11) “우리는 시각을 너무 많이 믿는다. 나는 땅을 쳐다보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인이 손을 더듬어 찾아낸 것처럼,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러한 존재를 우리의 손을 이용해 충분히 느껴야 한다”(칭 2023: 488).

12) ‘제1의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적 관계를 의미한다. ‘제2의 자연’은 자본주의적으로 변형된 환경을 뜻한다. 이는 대중적으로는 생소하기만 한 자연에 대한 상상이다. 여기에 ‘제3의 자연’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는데, 이는 곧 자본주의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3의 자연’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라도 “미래가 단일한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자장의 가상 입자들처럼 복수의 미래가 수많은 가능성과 함께 출현했다가 사라진다. ‘제3의 자연’은 이러한 시간적 다성 음악 안에서 창발하기 때문이다(송성도 2025 대학원 수업 종교인류학의 단톡방 대화에서 인용).

육지 중심주의, 범죄와 관련된 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섬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¹³⁾, 다문화와의 관련성, 국제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대, 통혼을 통한 육지와와의 관련성 증대, 교통과 교육 여건의 열악함, 복지와 보건, 의료체계의 미비, 연륙·연도에 따른 문제점 발생, 무분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섬마을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강화 등과 같은, 섬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¹⁴⁾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해결 방안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의 출현으로, 인문지형이 전방위적으로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섬 인문지형의 변동과 향방 역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매일 마주치며 목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섬의 인문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고 육지와와의 관계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현상이나 표상이 아닌 관계의 지형 속에서 인문 주체들의 활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인문 주체들의 ‘지금-여기’의 일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내력과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넘어선 ‘토착 지혜(indigenous wisdom)’의 현재적 함의 및 전통적인 생활상의 변모까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화 국면에서 조성된 섬 인문환경의 구조적 문제나 불안정한 균형 구도와 관련된 섬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지형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인문 현상을 관계·변화·영역의 지형도 속에서 재구성하는, 일종의 관점이자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문지형에서 말하는 관계성은 단순히 인문 요소와 세력들 간의 고정된 좌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상호

13) 예컨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국 사회의 섬주민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섬주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섬주민기본소득제의 철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어장 관련 공유자산 또는 공공자산의 ‘분배 정의의 정치’ 또는 ‘분배정치의 시대’(퍼거슨 2017) 등과 같은 문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남 신안군의 퍼플아일랜드를 비롯한 다도해의 섬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인구가 줄어들어 자칫 무인도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섬의 생태적, 자연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실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다, 갯벌, 식생, 생태환경과 같은 섬의 고유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렵고 힘든 분열과 고립, 절망의 상황에서 단결과 연대, 결속, 사회통합과 희망을 상징하는 퍼플색(보라색)과 같은 색채의 의미를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잘 연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섬마다 지닌 특징적인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그리고 각종 신화와 설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는 민속 문화들의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이를 섬주민기본소득제의 철학적 의미와 잘 통합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섬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119>

14) 섬은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인간 삶의 이야기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다. 그래서 섬을 무대로 한 인간들의 이야기, 또는 섬이 스스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가능하다. 섬은 누군가에게는 낙원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세상의 아이러니와 부조리가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샬란스키 2022: 16 참조).

관계와 변화의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층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구축하는 영역 또한 가시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문화 현상의 생산·전파·수용·재창출 등을 포함한 다층적 양상을 의미한다. 요컨대 인문지형이란, 인문 현상의 대내외적인 상호 연관성과 어떤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영역화되는 종합적인 사회문화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문지형 논의를 통한 새로운 섬 연구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인문지형 논의는 인문 현상의 맥락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영역화되는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내·외부의 영향에 의해 재편되는 인문환경의 변화와 그것에 대응하는 인문 주체의 노력과 좌절 또는 성취 과정을 의미 있게 읽어내는 데 유용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섬 인문지형 연구는 섬에 한정되었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육지적 관점’ 또는 ‘섬의 관점’이라는 일방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섬과 육지의 상호관계성을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읽어내고, 섬 인문의 다양한 요소들이 변동 속에서 영역을 구축하거나 형해화하는 과정을 관계론적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섬 인문지형 연구는 섬의 가시적·비가시적인 변화상과 그 변화의 추이를 맥락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연륙·연도를 통해 바다 네트워크가 내륙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섬사람들이 새로운 거점을 어떻게 형성하며 섬 정체성을 어떻게 지속, 변화시켜 나가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섬과 바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유례없는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change)와 혼돈(chaos)을 겪고 있다. 21세기 초반인 현 상황에서 섬과 바다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섬 정체성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섬 인문지형의 판도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섬에 불어닥친 위기의 바람과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섬과 바다, 섬과 내륙의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새로운 섬 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여러 측면에서 섬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섬 인문지형의 변동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¹⁵⁾

섬과 바다 세계에 불어닥친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에 따라 섬다움의 변화와 혼돈은 예전과

15) 예를 들어, 연륙·연도로 섬이 육지화되고, 저출산으로 섬 인구가 급감하며, 섬 지역과 사회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섬 공동체가 급속히 약화, 해체되고 있다(최정민 2021 참조). 섬사람들이 인근 항구도시와 내륙 도시로 이주하면서, 섬은 평소에는 불활성화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가 어로 활동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소위 이중적 공간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 고유의 네트워크 대신에 내륙 항·포구 중심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섬 공동체의 변화를 촉발하여 공유자원의 관리와 이용방식도 바뀌고 있다(송기태 2021, 홍선기 2021 등 참조). 특히, 연륙·연도는 섬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박성현 2021 참조). 이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 또는 ‘자연-인간’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홍석준 2021 참조).

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섬과 바다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 중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넘어선 기후 위기(climate crisis)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과 생태환경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기후 위기는 인류세의 위기와 지구의 생태환경, 인류의 사회문화와 역사의 위기를 수반한다(빈스 2018, 2023; 토머스 2024; 머천트 2022; 해밀턴 2018).

섬과 바다는 정체성의 변화와 혼돈의 경계 위에 서 있다. 기후 위기의 바람과 그에 따른 변화의 물결은 섬과 바다에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열린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는 섬다움의 변화와 혼돈의 경계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와 혼돈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발이나 발전을 넘어서 재생이나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뉴노멀 시대에 인류는 섬과 바다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비판적 성찰과 숙고, 실행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섬은 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함의를 지닌 개념이다. 따라서 ‘섬 정체성’(island identity)을 뜻하는 ‘아일랜드니스’(islandness)라는 개념은 “땅 중에서 물이나 해수로 둘러싸인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라는 ‘아일랜드’[island: isle(물, 바다) + land(땅, 물, 육지)]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 개념 자체가 ‘물’과 ‘땅’의 정체성이 모두 함께 갖는, 일종의 혼종적이면서 혼성적인(hybrid) 문화적 특징과 의미의 변화와 혼돈의 양상과 의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뉴노멀 시대 섬다움의 변화와 혼돈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바로 이러한 섬다움의 변화와 혼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혼돈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섬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 또는 육지를 가리킨다. 영어로는 island이다. island의 어원을 살펴보면, island는 중세 영어 iland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iland는 isle(물)+land(땅, 육지)가 합성된 조어로, ‘물에 둘러싸인 땅’이라는 뜻이다.

한국어 ‘섬’의 15세기 고어는 ‘섬’(훈민정음 해례본)(1446)이다. 현대 국어 ‘섬’의 옛말인 ‘섬’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근대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등이 반모음 ‘ㅣ’[y]의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셔’가 ‘서’로 바뀌어 19세기부터 ‘섬’에서 ‘섬’으로 변화되었다.¹⁶⁾ 아래아(ㄷ`ㅓ)+(ㅅ`ㅗ)->[독섬:石島](ㄷ`ㅓ)+(ㅅ`ㅗ)->[닥섬->take-sima:竹島] 일본어(take:竹) take는 대 죽(대 죽:竹)의 차음이다. ‘섬’>‘섬’은 ‘담’>‘탐(耽)’으로 변화되었다. ‘탐라’의 ‘탐’ 역시

16) 참고로, 고대 이집트어를 보면, ‘shemm (to inundate, summer inunda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범람하는 것’, 즉 ‘침수되어 고립된 구역’을 의미한다. 한국어 ‘섬’의 고어인 ‘섬’은 고대 이집트어 ‘shemm’과 관련이 있으며, 그 뜻은 ‘운하 수로로 구축되어 사방이 둘러싸인 운하 지대 즉, 인공섬’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

‘섬’이라는 뜻이다.

섬은 물속에 솟아있는 땅이다. ‘섬(島)’의 옛 형태는 ‘섬’이고, 섬>설>설업>서업>섬의 변화를 거쳤다. 아이누어 mosir(島)의 어근 mos(mot)는 토지의 뜻을 지닌 말이다. mosir(島)와 비슷한 용례로 mosir(國)<아이누어>와 mosir(世界)<아이누어> 등이 있다. 뫼(山), 들(野), 묻다(埋)의 어근 ‘묻’과 동원어同源語라 할 수 있다.

나라(國)의 어근 ‘날’은 토지의 어원적 의미를 지닌다. 논(沓)과 no(野)<일본어> 등의 어원에는 토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섬의 조어형(祖語形)인 ‘설(섬)’의 어원도 흙, 땅(土, 地)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래(이랑), 실(谷) 등의 어근 ‘래’와 ‘실’의 어원적 의미는 ‘흙’, ‘땅’(土, 地)의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몽골어에 siroi(土)가 있다. 어근은 sir이 된다. saki(崎)<日>, sakai(境界)<日>, saka(坂)<日>, sako(谷)<日, 奈良 吉野>. 어근 sak은 sal>salk>sak의 변화라 하겠다. 일본어에서도 고어에 sal이 흙, 땅(土, 地)의 뜻을 지니고 있었던 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 sima(島)는 한국어 ‘섬’과 동원어(同源語), 즉 ‘어원이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¹⁷⁾

섬이란 물에 둘러싸인 육지 중 대륙보다 작고 암초(巖礁)보다 큰 것을 말한다. 섬이 되는 기준은 국제 수로 기구에 따르자면 만조일시 크기가 10km² 이상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이다. 그 이하는 암초(巖礁)라 한다. 게다가 중심부가 해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대륙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대양(大洋), 내해(內海), 호소(湖沼), 대하(大河) 등의 수역에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섬이라 부른다.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하면, 면적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762만 7,000km²) 이상의 육지는 대륙이라 부르고, 그린란드(217만 5,600km²) 이하의 육지는 섬이라 칭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고,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섬은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가리킨다. 분포 상태에 따라 제도(諸島), 군도(群島), 열도(列島), 고도(孤島) 등으로 나뉘며, 생겨난 원인에 따라서 육도(陸島)와 해도(海島)로 나누기도 한다.

지각운동에 의하여 해저의 일부가 융기하거나, 해안산맥의 일부가 침수되어 높은 땅의 일부가 해면 위에 남아 있거나, 또는 육지의 일부가 침강하여 그곳에 해수가 들어와서 섬이 형성된다. 해저화산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화산도(火山島)나 해안 지역의 일부가 파도와 빙하의 침식을 받아 육지와 분리되어 만들어진 섬도 있다.

바다에 있는 섬은 육도(陸島)와 양도(洋島)로 나누어진다. 육도는 지질적으로 대륙과 같은 구성 물질로 되었으며, 육지의 일부가 대륙이나 또는 대륙에 가까운 큰 섬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섬이다.

17) <http://old.koreaa2z.com/kd/cgi-bin/xjump2.cgi?ssid=142845&dbid=../kd/kd&no=829>

양도는 육지와 관계없이 생성된 것으로서 화산섬과 산호섬이 여기에 속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섬 제도 관련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섬을 설명하고 있다. 제1항.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섬의 한자어는 ‘도(島)’이다. ‘도(島)’자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섬 도(島)’자에는 ‘새 조(鳥)’자가 포함되어 있다. 도(島)자는 鳥(새 조)자와 山(뫼 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새를 뜻하는 鳥(조)자 아래로 ‘산(山)’자가 있으니 ‘도(島)’자는 ‘섬’ 위에 새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새가 많이 드나드는 섬의 특성을 나타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섬에는 새가 많이 드나드는 섬의 이러한 특성과 육지와 떨어져 있고, 물을 건너야 하기에 왕래가 어렵다는 섬의 특징이 한데 어우러져 이런 모양의 섬 도島 자가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다리 놓는 기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섬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섬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뿐이었을 것이다. 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섬을 뜻하는 글자에 ‘도’라는 음을 붙인 이유도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붙여 있는 것을 ‘떨어뜨린다’라는 뜻을 가진 한국어에 ‘도막낸다’(토막낸다)라는 말이 있다. ‘도’는 ‘서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막’은 ‘막다, 막히다’에서 끝까지 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막’은 ‘완전히 떨어뜨리다’, 즉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된다. 이런 이유로 ‘도’라는 용어에서 섬의 의미, 즉 ‘육지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분리된 땅덩어리’라는 뜻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사례3〉은 섬마을에 얹힌 이팝나무 전설과 용왕제 사이의 문화생태적 연계성 또는 연결성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3〉 섬마을에 얹힌 이팝나무 전설과 용왕제

해마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이르는 시기가 되면 한반도 서남권에 속한 섬마을에는 이팝나무가 이른바 화양연화(花樣年華) 시절을 맞이할 정도로 많이 핀다. 섬마을은 만개한 이팝나무 꽃으로 뒤덮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팝나무라는 이름은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므로 ‘입하목(立夏木)’으로 부른 것이 이팝나무로 변했다는 유래가 있는가 하면, 꽃이 피면 나무가 하얀 꽃으로 덮여 나무의 하얀 꽃송이 모양이 이밥(쌀밥)을 연상시킨다는 데서, 또는 꽃이 활짝 피면 그해 벼농사가 풍년을 이루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팝나무는 고깃국과 함께 쌀밥을 먹어봤으면 하던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팝나무의 이미지는 김선태 시인의 ‘살구꽃이 돌아왔다’라는 시집에 실린 ‘그 섬의 이팝나무’란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쌀 한 톨 나지 않는 서해 어느 섬마을엔 늙은 이팝나무가 한 그루 있지요. 오백여 년 전 쌀밥에 한이 맺힌 이 마을 조상들이 심었다는 나무입니다. 평생 입으로는 먹기 힘드니 눈으로라도 양껏 대신하라는 조상들의 서러운 유산인 셈이지요. 대대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이 나무 밑에서 침을 꼴딱거리며 주린 배를 달랬겠습니까. 해마다 오월 중순이면 이 마을 한복판엔 어김없이 거대한 쌀밥 한 그릇이 고봉으로 차려집니다. 멀리서 보면 흰 뭉게구름 같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수천 그릇의 쌀밥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냄새가 사방팔방 퍼질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풍어제(용왕제를 가리키는 제의로, 풍어제라는 용어는 일제 시대 때에 만들어진 조어라는 설이 유력함)를 지냅니다. 이쯤이면 온갖 새들은 물론이고 동네 개나 닭들 하다못해 개미 같은 미물마저도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으러 모여드니 이 얼마나 풍요로운 자연의 한 마당 큰 잔치입니까. 대낮이면 흰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식혀주고 밤이면 환하게 불을 밝혀 뱃사람들의 등대 구실까지도 한다니 이만하면 조상들의 음덕치고는 참 미덥고 보배로운 것이 아닐는지요.”

‘그 섬의 이팝나무’라는 시의 전문이다. 해마다 5 ~ 6월에 이팝나무의 절경을 보려면 서남해 섬마을을 찾아가야 한다. 이 무렵 서남해 섬마을은 섬의 절경과 이팝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풍광이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보리고개’를 경험한 시기였다. 1960-70년대에 보리고개는 많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경험했던 가난과 빈곤의 상징이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생겨난 이야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남해 섬마을에는 흥년이 들어 어머니의 품에서 빈 젖을 빨다가 굶어 죽은 아기를 묻고, 그 앞에 이팝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쌀밥에 한이 맺힌 조상님들이 살아서 입으로 먹지 못한 쌀밥을 죽여서 눈으로라도 실컷 배불리 먹어보라는 간절한 마음과 애잔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아이에게 입으로는 먹이지 못했던 쌀밥을 눈으로라도 배불리 먹여보고자 하는 마음과 심정 속에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당시 이팝나무는 가난과 빈곤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팝나무의 전설은 배고픔과 가난을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겨내고자 하는 섬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른바,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상호부조론의 가치와 규범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크로포트킨 2005).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는 ‘빈곤의 문화’ 또는 ‘가난의 문화’(culture of poverty)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개념은 1959년에 그의 멕시코 빈민가족연구를 통해 최초

로 알려졌다. 그는 멕시코 가족에 관한 빈곤과 빈민의 이야기인 ‘산체스네 아이들: 빈곤의 문화와 어느 멕시코 가족에 관한 인류학적 르포르타주’(박현수 옮김, 이매진, 2013)이라는 책에서 멕시코 빈민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빈민들의 인생 속에 존재하는 빈곤의 사회적 조건, 구조의 문제, 빈민들의 욕망, 기대, 좌절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그는 이 책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뒤쳐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단순한 경제적 결핍 이상의 독자적인 구조와 적극적인 방위기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규범 간의 차이를 찾아낸 것이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특정의 가치, 신념, 태도 등과 같은 ‘빈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이나 가난은 이러한 ‘빈곤의 문화’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문화’와 관련된 빈곤의 사회 구조와 빈민들의 욕망과 기대는 제의와 의례를 통해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예컨대 가난한 어민들의 ‘빈곤의 문화’는 용왕제와 같은 제의나 의례를 통해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해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용왕제는 어민들이 섬마을의 안녕과 풍어,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로 일종의 축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서남해 어촌의 어민들은 용왕제(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의 의미를 포괄하는 바다 의례 또는 해양 제의)를 지낸다. 어촌에서는 풍어를 비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농촌과 달리 섬과 바다는 위험성이 강하기 때문에 용왕제(때로는 풍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풍어제라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일제 시대 때 용어 자체가 만들어지고 성행하였다고 하는 설이 있음)에 대한 종교적, 신앙적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남 서남권 해안가의 많은 어촌에서는 아직도 바다의 신을 모시는 신앙이나 종교적 관행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무속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민간신앙이 강한 것이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해안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 바다와 관련된 신화를 가진 동신(洞神)을 모신 신당이 있는 곳도 많다. 이런 섬마을에서는 특히 배를 가진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신앙이 강한 편이다. 배를 만들어 처음 진수할 때는 반드시 뱃고사를 지내며 배 안에 성주신을 만들어 모시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의나 의례를 행하여 배의 무사안전을 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뱃일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선주들이 스스로 나서 뱃사람들의 무병 건강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용왕굿을 포함한 용왕제를 할 때는 선주들이 굿판에 등장하여 뱃노래를 부르며, 무당은 선주를 위하여 잡귀를 쫓고 복을 받는 의례를 수행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용왕굿 중에 바다의 용왕신이나 해신에게 밥을 주는 헌식(獻食) 의례를 수행하기도 한다.

보릿고개 시절, 이팝나무는 쌀밥에 한이 맺힌 선조들이 눈으로라도 배불리 먹어보자는 심정으

로 심었던 해원과 위로의 ‘힐링’ 나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이팝나무를 심고 눈으로라도 쌀밥을 배불리 먹기를 소원했다. 큰 나무로 자라면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며 풍흥을 점쳤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마을의 이정표 나무로 섬사람들의 안녕과 복락을 함께 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다. 이팝나무는 대낮이면 하얀 그늘을 드리워 섬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밤이면 환하게 불을 밝혀 뱃사람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 미덥고 보배로운 조상들의 음덕이었던 셈이다.

해마다 5~6월에 서남해 섬마을에서 이팝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히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의례가 되었고, 이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초창기에 섬에 이팝나무를 심는 일은 입으로는 먹지 못한 쌀밥을 눈으로라도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는 조상들의 간절한 소망과 애절한 마음이 담긴 가난과 배고픔을 잊고자 하는 음덕의 결과였지만, 이제는 기아와 가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다. 시작은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한 것일지 몰라도, 이제는 조상들의 음덕을 실천에 옮기는 하나의 생활양식, 즉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 섬마을에 이팝나무를 심는 일은 그저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섬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섬사람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이며, 가난했던 시절의 ‘빈곤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만들기’로, 섬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섬사람들을, 단순히 타자화된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웃사람으로 대하도록 도와야 할 책무가 있는 섬 지도자들은, 용왕제와 같은 제의나 의례가 지닌 문화적, 민속적 의미를 현재의 맥락 속에서 살려내어 섬사람들의 ‘빈곤의 문화’를 극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¹⁸⁾

그러면, 전남 영광 지역의 법성포 용왕제를 사례로 하여 인간이 바다가 인간에게 선물한 선물들에 대한 답례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 <사례4>는 영광 법성포 용왕제의 선물교환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례4〉 영광 법성포 용왕제와 선물교환

단오를 맞아 영광 법성포 단오제 중 마지막 날에 용왕제가 선상에서 펼쳐졌다. 먼저 배가 출항하

18) 홍석준 2021.06.13. 남도일보 기사 참조하여 재구성.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기 전에 용왕제의 무사 기원과 제장(祭場)인 배 주변에 깃든 샛된 기운 등을 물리치기 위하여 쑥향과 황토로 정화의식인 정토 의식이 시작되었다. 무속에서는 이를 황토배설¹⁹⁾이라고 한다. 이어서 수협장을 초헌관으로 한 유교식 제사가 진행되었다. 유교식 제사가 끝난 후 신안 씻김굿 이수자인 ○○○ 선생이 안당부터 용왕굿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용왕굿, 고풀이에 이어서 임진왜란과 어업 중에 사망한 고혼들의 넋을 건져 위로하는 의식인 넋건지기 의례가 진행되었다. 넋건지기를 마친 다음, 길담음이 이어진 후, 용왕제의 마지막인 떠배 띄워보내기로 용왕제를 마쳤고, 이를 통해 용왕제는 전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용왕제는 인간에게 주는 바다의 선물, 즉 바다와 인간 사이의 선물교환이라는 틀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스의 견해에 따르면, 선물교환이란 선물 주기, 선물 받기, 선물 되갚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주고받는 대상 사이에 신뢰와 명예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례를 통해 선물교환이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용왕제는 바다라는 자연(또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먹거리를 포함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선물에 대한 인간의 ‘선물 되갚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용왕제의 선물교환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왕제는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연계하는, 일종의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례를 통해 섬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강화되기도 하며, 섬사람들과 자연(신)과의 관계가 공고화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과 부정의 이원성이 존재한다. 제주(祭主)가 의례 전에, 목욕재계를 해야 하는 이유 또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과 부정 사이에는 ‘순수와 위험’(터글러스 1996)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며, 이 사이의 단계를 리미널리티, 그 상태를 코뮈니타스라고 볼 수 있다(터너 2022). 이런 의미에서 용왕제는 신(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장이며, 이 의례를 통해 신과 인간 사이에 상징적 교환이 일어난다.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자신의 저서 『증여론』에서, ‘선물’의 세 가지 핵심 의무, 즉 증여의 의무, 수령의 의무, 답례의 의무를 정의하고, 선물로 특징지어지는 원시 문화에서 자본주의를 대신할 미래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다(모스 2002, 2025).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답례의 의무를 함축한다. 선물에는 답례를 강제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선물의 사회적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주고받고 답례’하는 것이다. 원래 ‘식사를 제공하다’ 내지 ‘소비하다’를 뜻하는 포틀래치는 일종의 ‘선물 게임’이다. 결혼식이나 성인식, 조상신에 대한 제사

19) ‘황토물림’은 해로운 기운을 내보내는 의식으로, 금성당 정문을 시작으로 우측 문, 담장 네 귀퉁이에 황토를 배설하며 ‘금줄 치기’는 신성한 공간을 구분하는 의식으로, 금성당 건물의 좌우 문과 중앙 정문 등 세 곳 문 상단에 금줄과 함께 정화지와 길지를 꽂는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등의 축제 때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초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게임’에서 진 것이 된다. 이는 대개 경쟁이나 전쟁처럼 격렬하게 진행되며, 종종 대대적인 물자의 파괴를 수반하는데, 이는 결국 명예 내지 권위로 되돌아온다. 쿨라는 트로브리안드 군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선물이 증여자(贈與者)와 답례자(答禮者) 두 항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과 달리 섬 전체를 돌며 여러 항 사이에서 행해진다. 그것은 두 개의 정해진 물건을 선물하는데 하나는 조개 팔찌이고, 다른 하나는 조개 목걸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답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반복된다면 한 번의 선물은 대대적인 선물의 연쇄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실 채권-채무 관계 역시 선물을 주고받는 의무 체계의 일부이다.

이러한 선물의 체계는 분리된 가구나 가족들 사이에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팝나무의 전설은 섬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팝나무 전설의 상징적 의미가 섬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선물’ 교환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제적 동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 이는 일종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삶은 어디든 증여의 양상을 취한다. 역으로 선물의 순환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나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물을 개념을 좀 더 확장한다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식물이 동물에게 산소를 선물하고, 동물이 식물에게 유기물을 선물하는 관계 역시 선물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서로 기대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진경 2019 참조).

모스는 선물교환을 통해 ‘계산기’가 되어 버린 근대적 ‘경제적 동물’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선물을 교환이라는 ‘일반적’ 현상으로 포착하는 모스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간주한다.²⁰⁾

보아스(Boas)가 아메리카 북서부 해안에서 조사한 포틀래치(potlatch)와 말리노프스키(Malinowski)가 멜라네시아에서 조사한 쿨라(kula) 등 선물교환 체계는 섬과 해안 마을의 교환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섬과 군도, 해안, 바다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 교환 체계가 단순히 경제적 기능을 넘어 인간의 삶과 연계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서로 매개하는 문화생태적 연결고리를 형성,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일까? 이러한 선물교환은 ‘호혜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며, 그 의미는 자연문화, 즉 자연생태와 인간문화의 교환 체계를

20)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75446.html>

수반한다(오명석 2010, 2023 참조)²¹⁾.

포틀래치는 숲의 정령, 영혼, 부족의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의(犧牲祭儀)’ 또는 ‘공희(供犧)’의 의미를 포함했다(정현목 2018). 포틀래치에는 경제적 개념만이 아니라 도덕적 관념과 종교, 원리, 가치, 규범, 규칙 등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주기, 받기, 답례하기라는 의무를 통해서 작동한다. 이러한 작동 과정에서 신용과 명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쿨라는 멜라네시아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교환 체계이다. 쿨라라는 말의 뜻은 ‘원(圓)’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의 원에 휘말려서 그 원의 주변을 따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러 섬은 ‘거대한 의례 교환의 원’ 속에서 결합된다. 이 순환은 끊임없으면서도 정확하게 행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틀래치와 쿨라는 주기, 받기, 답례하기의 의무는 증여교환 체계를 작동시키는 정신적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증여교환 체계는 사회 현상이면서 정신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교환 시스템은 근대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재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작동한 것이다. 이러한 교환 체계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각종 축제는 이러한 포틀래치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근대 또는 현대의 맥락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3. ‘타자들의 생태학’을 통해 본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 : 자연/문화 관계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는 ‘신기후체제’²³⁾ 시대이다. 신기후체제는 기후위기의 가속화 추세를 완화하고 멈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방증한다. 김상준은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의 생명 세력과 파괴 세력 간의 결전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세계에 대한 우화라고 진단하면서, “최근의 극서와 극한의 널뛰기는 이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단순한 ‘지구 온난화’나 ‘이상기온 현상’이 아

21) 출처: <https://lifecuration.tistory.com/177> [Life Q - 철학은 기술이다:티스토리]

22) https://lifecuration.tistory.com/177#footnote_link_177_3

23) ‘신기후체제’란 “기후위기 시대의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김상준 2022).

나라 기후위기 시대의 뉴노멀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상준 2022).²⁴⁾ 〈아바타2〉는 이 신기후체제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상준 2022 참조).²⁵⁾ 영화 속 아바타는 두 얼굴이다. 하나는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나비족으로 위장한 파괴 아바타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그물’(무어 2020)과 하나가 된 생명 아바타다(김상준 2022).²⁶⁾

고대로부터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지금처럼 안전한 선박과 뛰어난 항해술이 없었기에 바다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허구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바로 해신(海神)이다. 처음에는 고래나 뱀과 같은 동물들을 형상화했다. 이후 점차 이를 의인화했다. 특히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해신이 등장한다.

한국에는 용왕(神)과 당신(堂神)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남해신, 동해용왕, 마조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바닷길에는 해신 중의 으뜸인 관음을 숭배하는 관음신앙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사례5〉 중국 남해신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선물교환

중국은 고대 해상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각기 다른 해신들을 만들어냈다. 산둥성 일대 동해용왕, 남부 광저우 일대의 남해신 축융, 중부지역인 취안저우의 통원왕, 푸젠성의 마조 등이 대표적이다. 광저우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해신의 묘가 있다. 광저우의 남해신묘는 파라묘라

24) 한 예로, 1972년 발표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다. 2022년은 ‘성장의 한계’ 출간 50주년이었다.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하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요 이유로 지구 가용 자원의 한계를 들었다. 이 경고는 그러나 오랫동안 칭송보다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을 받았다.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장의 한계’ 출간 이후 오늘날까지 지구촌의 산업생산 지표는 과거보다 더욱 맹렬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성장의 한계’의 메시지에 다시금 강한 힘을 불어넣었다. 한계를 넘은 성장이 낳은 부정적 결과들이 모여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자연현상을 만들고, 그렇듯 만들어진 ‘신기후’라는 ‘신자연’이 성장에 자연적 한계를 긋고 있다(김상준 2022 참조하여 재구성).

25) 〈아바타1〉을 보면 주인공은 파괴 아바타로 시작하나, 이후 생명 아바타로 의식과 존재를 바꾼다. 따라서 아바타 시리즈는 생명세력과 파괴세력 간의 문명적 결전의 영화이자, 인간 내부의 생명과 파괴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바타2〉에서 보았듯 파괴세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 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파괴세력이 가진 힘을 생명화해야 한다. 인간의 권력, 경제적 부, 과학, 종교가 생명화되어야 한다. 생명화란 ‘생명의 그물망’ 속의 그물코가 됨이고, 그 그물은 나눔과 공존의 그물이다(김상준 2022). <https://www.naeil.com/news/read/446856>

26) 김상준의 진단에 따르면, 성장지상주의는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풍요를 위해 무한한 성장이 필요하지 않음도 밝혀졌다. 코로나19 사태는 성장이 멈추고도 풍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오히려 무한성장주의가 나눔의 풍요를 질식시킨다. 그럼에도, 아바타의 파괴세력처럼 자연을 끝없이 약탈하면서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대멸종’이 오더라도 지구 밖으로 탈출해 새로운 우주 자연을 정복하면 된다고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과 우주가, 그리고 생명과 인간까지도, 오직 그들과 그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괴이한 부류다. 그들이 바로 ‘아바타’의 침략자, 파괴세력이다(김상준 2022).

고 불리며 황포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있다. 594년에 만들어져 14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 고대 4대 해신묘 중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남해신을 모신 사당을 통해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증거로 광저우가 고대로부터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규모도 상당하다. 예전에 바다가 있었을 사당의 정면에는 커다란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남해신묘를 찾은 관광객들은 저마다 향불을 태우며 기도에 열중하고 있다. 이곳에는 남해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모셔져 있었다. 푸젠성에는 지금도 마조신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푸젠성의 마조신앙이 크게 발전한 것은 해양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형성과 변동 과정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곳은 많은 항해자와 해외 이주자들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화인들의 진출과 함께 마조 신앙도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지로 퍼져나가 각지에 마조의 사당이 건립되었다. 그중에서도 마조 신앙이 유별난 곳이 대만이다. 대만에서 마조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옥황상제만큼이나 인기가 높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도 마조의 사당이 있는데, 이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장성 일대에서는 관음신앙이 대세다. 고대 무역항인 Ningbo 앞 바다에 중국 최대 관음성지인 보타도가 있기 때문이다. 관음신앙은 인도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광저우와 푸젠성을 거쳐 Ningbo에서 꽃을 피웠고, 바닷길을 따라 한국과 일본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중국은 산둥성 일대에서는 용왕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 주요 사찰은 물론 유적지마다 용왕을 모시는 사당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는 재물신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는 해신으로도 추앙받고 있다.

〈사례6〉 한국의 용왕신과 당신(堂神) 신앙을 통해 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선물교환

한국의 대표적인 해신은 용왕신(龍王神)과 당신(堂神)이다. 용왕은 한국의 모든 바닷가 마을에서 해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천과 부산 등에는 용왕을 모시는 용왕사가 있고, 바닷가 마을에서는 당신과 함께 빠지지 않고 용왕에 대한 제사를 올리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당신은 해신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해북부의 임경업 장군, 서해 중부의 개양할미, 남해 서부의 칠머리당, 남해 중부의 최영장군 등이다. 특히 서해안 황해도에서 전북에 이르는 경기만 지역에서는 임경업 장군 신앙이 전승되고 있다. 그는 조기잡이를 가르쳐 준 고기잡이의 신으로 특화되고 있고, 인천 연평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한국 해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배를 지키는 선신(船神)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선신은 배서낭으로 불린다. 배서낭은 배의 수호신이자 어로신이며 항해신이다. 그래서 항해의 안전과 선원의 무사 그리고 만선의 풍어를 기원하는 대상이 된다. 선원들은 배서낭의 도움으로 태풍과 풍파에도 무사할 수 있으며, 서낭의 울음소리로 길흉의 전조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어민들은 배서낭의

영험에 따라 풍어가 되고 흉어가 된다고 여긴다²⁷⁾.

〈사례7〉 생업 환경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해신당의 사례

국내에서 해신당은 개척령 이후 이주했던 사람들의 삶과 함께 생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신은 해신(해신은 일제시대에 차용해서 남아있는 것, 우리나라에 해신당이라고 남아 있는 곳은 없음, 우리나라는 용왕), 해왕대신, 동해해신, 동해보명신, 사해용왕신 등이다. 대상신은 동해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들이 대부분이다.

성하신당의 해신제를 살펴보자. 바다의 신에 대한 제의가 성하신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과거로부터 배를 짓고 나면 용왕제를 태하 신당에서 지냈다. 동해안에서처럼 서남당에서 마을 수호신과 바다의 신에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해신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초기 정착민들이 마을 공간의 확산과정에서 바다와 연접한 곳으로 이주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섬 주민들이 농업에서 어업으로 생업을 전환하면서 산신제에서 해신제로의 변환하였으며, 일제시대에 어업이 주로 행해지면서 제의도 이와 관련을 맺고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²⁸⁾

인류학자들은, 섬과 해양 사회가 결코 야만적이거나 미개하거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클라스트르 2002, 2010). 이러한 사회들이 포함된 세계를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묘사하기도 했다(살린스 2023). 그들 중의 일부는 이러한 세계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파괴되고 해체된 사실에 거대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아직도 채 사라지지 않은 그들 세계 속에서 자본주의의 삭막한 삶을 대신할 ‘미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도서해양사회 또는 도서해양문화는 육지나 내륙의 사회와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거나 뒤처지는 사회나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서해양문화는 육지의 문화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섬과 바다 문화가 육지나 물, 내륙의 문화에 비해 낙후되거나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문화는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적, 생태환경적 조건의 산물이기도 하기에, 도서해양과 관련된 문화, 특히 섬과 도서를 포함하는 도서 지역은 육지와 상대적으로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자원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지역 또는 공간으로 인식

27) 출처: 인천일보 해상실크로드 탐사취재팀.

28) https://blog.naver.com/silcamera/1402038861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되어왔다. 또한 육지로부터 고립되거나 떨어져 있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서 지역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생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양식과 사고방식의 과정이고 정의하게 되면 도서 지역의 문화가 생태 환경과 별개의 고립되고 분리되거나 제한된, 어떤 불변의 특징이나 특정의 문화 원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나 그러한 설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어떤 특정의 실체를 지닌 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특정의 문화적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런 의미에서 문화가 변동의 산물이라고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면, 도서 지역의 문화 역시 변동이나 변화의 산물이라는 관점과 인식, 그리고 방법에 의해 탐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 지역의 문화는 육지 지역 문화의 원형이거나 과거형 또는 육지 문화에 비해 열등하거나 낙후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지 문화와는 상이하면서도 공통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나거나 유사성을 지닌 특정의 내용과 방식으로 상이한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변모되어 온 ‘또 하나의 문화’ 또는 육지 문화와는 다른 ‘타자들의 문화’(The Culture of Others)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화가 변화하듯이, 도서 문화 역시 변화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도서 문화는 주로 주류 문화의 원형이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김창민 2002: 181-2, 204 참조). 이러한 관점의 연구와 조사는 ‘사실 수집’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경도되는 연구 경향으로 문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화가 생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면 문화의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간의 연구 동향과 실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서해양 문화에 대한 총체적 관점과 인식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긴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도서해양 문화의 관점이란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총체론적 관점을 의미한다(김창민 2002: 182 참조). 도서해양문화 역시 일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관계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 지적,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로 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예컨대 쿨라는 트로브리안드 섬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그들 자신

29) 영국의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섬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지(ethnography) 작업의 목표는 “섬 현지인, 즉 섬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그들 자신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 자신의’ 세계관을 실감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섬사람들에 관한 현지 조사(fieldwork)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온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 자신의’ 세계관을 실감할 수 있는, 쿨라의 ‘선물교환’의 특성과 의미³⁰⁾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³¹⁾

19세기 후반 자연의 과학과 문화의 과학 각각의 접근법과 영역이 상세히 기술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론적으로 보면 두 연구 분야 간 방법론의 차이를 강조하는 인식론적 작업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천적으로는 오늘날 친숙하게 된 대학과 연구소라는 분화된 조직이 최종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지구의 재난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손쓸 수 없는 큰 규모의 차원에서 다가온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성 역시 급증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었다. 예컨대, ‘자연의 인류학’은 인간과 비인간 간 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기획 중 대표적인 것이다(데스콜라 2022). 그것은 사회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인식론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는 자연과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과 그것에서 비롯하는 이론들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논평한다. 그는 근대사회와 과학기술의 존재 양식을 재고함으로써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인류학을 주창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타자’) 간의 ‘관계의 생태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주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앎과 실천을 통한 존재론적 구성의 변화를 통해 지구 환경과 인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방향을 모색한다.³²⁾

현 시대의 인문지형의 변동과 향방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주제들, 예컨대 과학기술, 자연문화, 비인간, 반려종, 식물들, 비인간, 물질, 물건들, 혼종성, 난민들, 다수의 자연, 로봇, AI, 챗GPT, 딥플, 딥시크 등과 같은 주제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간은 특별하고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물들, 다른 만물들과 연결된 존재이다. ‘인간이 바라본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 바라본 인간’이라는 전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인간과 타자, 문화와 자연이라는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측면에서 어떻게 문명

30) https://inmoonse.com/sapiens/sapiens_mind/?mod=document&uid=1040 한편, 조르주 바타이유는 모스가 〈증여론〉에서 호혜성의 주된 논리로 예를 들고 있는 포틀랙치를 일반경제의 관점에서 ‘잉여’의 문제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바타이유 2002). 바타이유는 일반경제 관점에서 보면 포틀랙치야말로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야기하는 기묘한 역설의 예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적 소비’가 아닌 아무런 쓸모 없이 보이는 ‘비생산적 소비’야말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참된 메커니즘이라고 말한다. 아무 쓸모 없이 보이는 낭비, 사치가 정말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는 그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부터 힌트를 얻어낸 것이 아닐까 싶다(이진경 2019 참조해서 재구성).

31) 출처: <https://lifecuration.tistory.com/177> [Life Q - 철학은 기술이다:티스토리]

32) 출처: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4292401>>

과 야생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숲을 관찰함으로써 오히려 인간 자신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된다. 숲속에서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이 기묘하고 낯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와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문명과 야생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숲과 인간, 자연사와 역사의 얽힘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섬과 바다는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위기와 변화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섬과 바다의 위기의 바람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생태 위기의 바람은 섬과 바다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린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는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이라는 경계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과제 중에서 가장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를 새롭게 보면 섬을 잘사는 섬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때 잘산다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사는 섬이란 문화가 융성해서 섬사람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을 가리킨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의 저서 <백범일지>에서 말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문화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다.

이 말은 섬 문화의 융성과 발전을 위한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듯이 문화를 통해 섬의 아름다움과 평화, 섬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섬과 바다에 대한 기존의 육지 중심, 농업 중심의 인식을 섬과 바다를 중시하는 인식과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경구를 다시 떠올리는 일은 자못 참신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준다.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인 E. F. 슈마허(Schumacher)는 그의 주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GNP 또는 GDP로 대표되는 기존의 국민소득과 성장률에 기반한 경제지상주의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규모의 경제와 성장 위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인간 부흥의 경제를 주창한다. 성과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인간의 모습을 한 경제를 강조하면서 더 빠른 성장과 더 커다란 경

제와 더 많은 소유에 대한 맹신이 종교적 확신에 이른 듯한 오늘날, ‘작은 기업’ 또는 ‘착한 기업’의 실천을 촉구한다. 공유와 행복을 위한 인간의 경계를 넘어 인간 살림살이의 가치와 규범을 주장한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작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작으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은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항상 대규모의 사업에 비해 자연환경에 적은 해악을 끼친다. 이는 소규모 사업의 개별적인 힘이 자연의 회복력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은 이성보다 경험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규모적이고 단순한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작은 것에 인간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셈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하자는 것’임과 동시에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기술 맹신에서 벗어나 ‘작은 것들’의 연대를 통해 공유와 행복을 이루자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근대 경제학의 물질주의에 경도된 결과, 현재 섬과 바다는 위기의 바람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변화의 물결을 추동하기 위해선 근대와 전통, 또는 성장과 정체 사이의 대립보다 둘 사이의 중도, 즉 ‘올바른 생활을 발견하는 문제’로 바라볼 때, 이제까지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에 비해 인간은 한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과신하고 자연의 역할을 폄하한다. 인간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운명을 타고난 외부 세력이라고 여겨왔다. 그 결과 인간은 현재 스스로 자신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섬은 육지에 비해 작고 단순한 편이기에 자연환경에 적은 해를 끼친다. 작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작으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작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섬 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는 섬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작아서, 작으니까, 풍요롭고 행복한 섬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섬의 철학과 정체성은 소박함과 비폭력이다. 적은 수단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성의 핵심이다. 섬의 비폭력성은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자연에서 얻는 자원, 특히 재생될 수 없는 재화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나무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석탄이나 석유 등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폭력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21세기 현행 위기의 징후들인 금융위기, 기후위기, 식량 위기, 일자리 위기 등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날 지구적 격변의 원천들은 한 가지 공통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비롯

한 자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의 자본주의다(무어 2020). 자연-속-인류의 율동적이고 재생적인 변증법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³³⁾

코로나19는 자연 재난인가 경제 문제인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상 우리 시대의 두 가지 근본 위기를 표상하는 거대 증상인 ‘기후변화’의 가속과 ‘부의 불평등’의 심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삽화적 참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의 불평등’은 흔히 인간 사회의 경제적 병폐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기후변화’는 거의 어김없이 일종의 자연적 재난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작금의 미생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균열을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팬데믹 사태가 단순히 생명과학적인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자연과 사회의 혼성물, 물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혼성물임이 틀림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의 불평등’과 ‘기후변화’ 역시 인간 세계와 비인간 세계의 혼성물이다.³⁴⁾

무어는 자연 및 사회라는 데카르트적 이항 구조로 특징지어지는 이원론적 근대성을 넘어서고자 시도하면서 자연을 이중 내부성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오이케이오스로 여기는 생태적인 비근대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애초에 ‘수도꼭지’와 ‘개수대’로서 작동하는 외부적 자연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와 자연은 공동생산하는 생산자이자 생산물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와 자연은 각각 별개의 실체로서 상호작용하는 이원론적 신진대사가 아니라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자본주의 속 생명의 그물’이라는 단일한 신진대사를 상징하는 동일체인 것이다.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종을 모두 생산하는 생명 형성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인류는 풍경뿐만 아니라 인간 생물학도 전환하는 일련의 환경 형성 활동을 통해서 진화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 일반이 비교적 일정한 다양한 패턴(태양 주위를 궤도 형태로 공전하는 지구)을 나타내지만 ‘자연’ 역시 역사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고, 도중에 타인 및 자신의 생물학과 관계를 맺는다. 권력구조와 생산구조, 그리고 특히 재생산구조는 우리가 풍경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이들 환경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이다. 하지만 우리의 어휘와 개념들은 이런 이원론에 배선되어 있다. 이 이원론을 파괴하고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라는 개념은 인간이 생명의 그물 안에서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관한 중요

33)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0925600>>

34) 인간-비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접착제가 자본주의다. 사회와 자연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게 얽혀서 하나의 관계적 전체, 즉 ‘생명의 그물’을 형성한다는 관계주의적인 전체론적 시각이 중요하다. 사회/자연 혹은 인간/자연이라는 서양의 근대적 이항 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판하면서 비근대적이고 생태적인 세계상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한다(무어 2020).

한 질문을 제기하는 데에는 미덕을 지니고 있지만, 이 물음에는 제대로 답할 수가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분석을 호도한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의 바로 그 견지가 이원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라는 개념은 자본가들에 의해 초래된 문제가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오래된 부르주아 수법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그것은 일련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인류 전체의 책임으로 제시하는 대단히 인종주의적이고 유럽중심주의적이며 가부장주의적인 견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의 개념은 ‘자연’/‘문화’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³⁵⁾

〈사례8〉은 인간과 환경, 생태와 문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응과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인간의 생태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생태적 관점이나 이론과 방법의 ‘토착 지혜’로서의 특징과 의미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례8〉 탐진강 ‘장어다물’ 어로와 생태

전라남도 강진군의 최대 하천인 탐진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는 강진만은 바닷물과의 소통을 통해 여전히 기수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는 ‘장어다물’을 이용하여 ‘뱀장어’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어다물’은 조류가 급하지 않고 바닥이 단단한 곳에 약 1m 정도 높이의 고깔 형태로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것이다. ‘장어다물’은 뱀장어의 습성을 이용한 함정 어구의 일종이다. 뱀장어는 보통 낮에는 돌 틈이나 갯벌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활동을 하는 습성을 지닌다. 이러한 장어의 습성을 이용해 돌무더기를 쌓아 두고 장어가 들어가 숨도록 유인한 후 이곳에 숨어 지내는 장어를 잡는 것이 ‘장어다물’ 어로 방식이다. 장어다물 어로에는 생태 환경에 맞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어로 작업 시기는 뱀장어 생태에 맞춰 이루어지는데, 경험이 더해져 결정된다. 작업 시간 여건에 맞는 물때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구의 변화에 맞춰 그물을 어로 작업에 도입하였다. 이곳에서의 장어잡이는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한낮에 물이 빠지는 때에 주로 행한다. ‘장어다물’ 어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망이 작동하는데, ‘어로 당사자 관계망’과 ‘판매 관계망’이 가

35) 인류세라는 용어는 정치경제학적 통찰과 함의가 부족하다. 1999년 「가디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개의 화학 연료 회사가 1965년 이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2020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환경에 대하여 최상위 10%의 부자는 25~43%에까지 이르는 영향을 미치고 최하위 10%의 빈자는 겨우 3~5%의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우리의 환경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체로 일부 사람들, 특히 자본과 부자에 의해 유발된다. 그 리하여 무어는 우리 시대를 자본세라고 단연코 일컫는다. 이런 점에서 자본세라는 관념은 자본과 자본주의 권력에 현행 기후 변화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운동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무어 2020: 1-2, 참조하여 재구성).

장 중요하다. 어로 당사자 관계망은 ‘장어다물’을 행하는 어민들 상호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판매 관계망은 어획된 뱀장어의 판매와 관련된 어민과 판매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어획된 뱀장어의 판매에 대한 관련성의 밀접 정도에 따라 어민과 어민 사이는 어민과 판매자와의 관계에 비해 다소 느슨한 관계망이 형성된다. 생태 민속은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람 간의 적응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해 파악하는 작업이다. 즉,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맺음을 통해 만든 문화”를 말한다. ‘장어다물’은 강진만의 생태 환경과 이것에 적응하던 사람들의 지혜가 오롯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 자원이다(박종오 2022:89).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양식어업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업의 형태가 ‘잡는 어업’에 기반을 둔 어렵(漁獵)에서 ‘심고 기르는 어업’인 어경(漁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섬과 바다를 둘러싼 어업 환경은 ‘잡는 어업’의 위기를 넘어 ‘심고 기르는 어업’으로 변환하는 중이다.³⁶⁾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냥 준다면 그를 하루만 배부르게 할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미국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 교수는 저서 〈분배정치의 시대〉에서 오늘날 어업의 현황과 어민들의 현실을 떠올려 볼 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은 집어치우고 “그냥 물고기를 줘라”라는 이야기다. 특수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어업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 즉 어부 또는 어민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대에 어떤 인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실업자 어부를 양산하거나 기껏해야 이미 경쟁이 포화상태인 분야에 뜨내기 한 명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세상이 급변한 것이다.

지금 섬과 바다는 위기의 물결과 변화의 바람이라는 경계 위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36) 한편, 굴이나 김 양식 산업을 포괄하는 양식 산업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굴이나 김과 같은 비인간과 인간, 그중에서도 복수의 인간인 인간들이 서로 얹히고설켜 하나의 집합체로서, 여기에는 해양의 각종 바이러스, 고수온, 쓰레기 등과 같은 생태 문제도 긴밀하게 얹히고설켜 있다(김지혜 2024). 생산량의 급증은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식, 도구, 생태계 파괴, 자본 등이 포함된 복합적 집합체의 결과물이다. 양식장의 급증과 강세 경향은 해양이 자본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은 고립, 분리되거나 고정불변의 확정된 공간이 아니라 해양 바이러스와 쓰레기 등에 의해 급격히 변화되거나 변형되는 공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양식의 문화를 생물, 광물, 사물, 물질, 객체, 생태, 위험(위험 요소, 위험 인자 등 포함)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연/문화의 입체성과 다변화성을 잘 드러내 주는 문화변동의 현장을 제공하는, 자연의 인간을 위한 ‘선물교환’의 장이 된다(김지혜 2024; 베넷 2022; 하먼 2024, 2025 참조). 이때 비로소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징적 교환과 거래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진도의 요내기 밥 주기’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경수는 ‘요내기 밥 주기-진도하학이 가야할 길: 세상을 향한 지도 지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진도 초가집 지붕의 하얗은 벌레인 요내기에게 밥 주기를 하고 이것들을 모아 불태워 없애는 전통적인 민속 의례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 AI시대의 애니미즘과 네오애니미즘 세계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소개한 바 있다(전경수 2024). 이러한 설정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은 육지와 내륙과 마찬가지로 섬과 바다에도 뉴노멀 시대를 가져왔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다. 지금은 뉴노멀 시대다. 섬과 바다 역시 위기와 변화의 경계 위에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점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뉴노멀 시대에 접경수역 또는 변경지대에 위치한 섬과 바다는 더욱 그렇다. 조미아(zomia)³⁷⁾라는 말이 있다. 주로 국경이 없는 변경지대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조미아는 전 세계의 여러 지역 가운데, 아직 국민국가 안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는 인간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넓은 의미에서 섬사람들은 대체로 조미아에 속한다. 이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 해상 조미아 또는 수상 조미아라는 말이 있다. 이들을 육상 조미아와 대비시켜 부르는 말이다. 경계에 선 섬과 바다, 그리고 섬사람들은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섬과 바다, 특히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와 변화의 경계 위에서 있으며, 이것이 뉴노멀 시대에 이들에게 특히 주목해야 할 주된 이유이자 근거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글로벌 차원에서 ‘바다’와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구 환경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에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었다(Dodds and Royle 2003). 바다와 섬이라는 주제에 주목하는 일, 즉 바다와 섬을 통해 바다사람들과 섬사람들의 삶, 나아가 인류 전체의 삶과 생활을 재조명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바다를 건넜다. 대륙에서 바다를 거쳐 섬으로, 섬에서 바다를 거쳐 다른 섬으로 끊임없는 이동을 거듭해 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바다사람들과 섬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지불식중에 바다사람들의 삶과 죽음, 이동과 정착과 관련된 다양하면서도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절해고도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은 고립의 개념과 긴밀한 관

37) ‘조미아’(Zomia)는 베트남의 중부 고원에서 시작하여 대륙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과 중국의 네 지방(윈난, 구이저우, 광시, 쓰촨 성 일부)을 가로지르며 인도 동북부까지 뻗어 있는 해발 300미터 이상의 고지대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이다.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와 종족을 배경으로 가진 1억 명 가량의 소수종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리적으로 대륙 동남아시아 산지(massif)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책의 저자는 단순하고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려 한다. 오늘날 평지의 왕국들은 산에 사는 소수종족들을 ‘살아있는 조상’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는 달리 그들은 지난 2천 년 동안 노예제와 징병, 과세 부역, 질병, 전쟁 등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파쇄 지대(shatter zone)’(인류학과 정치학에서 국가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온 변경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또는 ‘탈주 지대’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파쇄 지역에 대한 여러 문명들의 ‘야만’, ‘날 것’, ‘미개’에 대한 담론을 해체한다.

련을 맺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유배 또는 기성 질서나 가치로부터의 일탈이나 배제를 상징한다. 고립이나 유배, 그리고 일탈의 의미 속에는 고정관념에 대한 반란 또는 저항이나 자유로움에 대한 간절한 희구가 담겨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 가치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란이 도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을 통해 기성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이런 의미에서 섬은 고립과 유배의 땅일 뿐 아니라 저항과 반란을 통한 새로운 질서 창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섬의 상징성에는 고립으로 인한 고독과 유배 뿐 아니라 기성 가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의 창출, 그리고 육지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물을 수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복합적이면서 다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섬의 상징성이 갖는 후자의 의미를 강조하면, 섬에서는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적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채, 외적으로는 각종 외래문화의 수용과 자기화 과정을 실용적으로 관리,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 가능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섬은 육지와 대비된다. 육지의 존재가 섬의 정치적, 문화적 형태를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육지가 외래문물의 도입에 대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작위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데 반해, 섬은 바다라는 자연의 경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섬의 문화는 곧 섬사람들의 문화다(Dodds and Royle 2003: 488).

섬 혹은 도서란 수역에 둘러싸여 여타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대륙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육지를 말한다. 그 크기는 그린란드(Greenland)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보르네오(Borneo)처럼 거대한 것에서부터 작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소규모의 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섬 지역에서는 도서성이라는 자연환경 상의 특수성이 섬사람들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해양생태계에 기반을 둔 도서생태계의 특징은 상대적 고립, 크기 혹은 공간 자원의 제한성, 그 안에 존재하는 자원의 제한성 또는 몇몇 자원의 미비 내지 결여 등으로 요약된다(Forsberg 1970). 이러한 상대적 고립, 공간의 제한성, 자원의 부족 등은 도서성(insularity), 즉 도서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을 이루는 기본 속성들이다. 상대적 고립은 섬 안의 생물과 무생물들을 외부 경쟁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도 특수하면서도 고유한 문화적 유형들이 보전되는 경향이 있다.³⁸⁾

38) 바다와 섬의 삶과 풍습이 지닌 중요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육지와는 구분되는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공동체성이다. 바다와 섬을 생활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내부적으로 자원을 전유하고 이를 통제, 조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

4. 맺음말에 대신하여: 자연/문화의 관계론적 전환의 의미

“지중해는 대륙이 맞닿아 서로의 문명을 교류하는 현장이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어주는 것은 언제나 바다였다. 이곳을 정복한 자들은 누구나 이 바다를 가리켜,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중해는 그곳의 문명에 빚진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바다이다.”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의 기억』 (2006) p. 293. 중에서

바다는 항구를 매개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광역의 공간을 구성하는 다문화(multiculture), 다종족(multiethnicity), 다종교(multireligion)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대량의 물자와 인원, 그리고 정보의 운송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 자원은 배후지나 내륙과의 교역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바다 연안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고, 그럼으로써 항구도시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섬과 바다 해역(또는 수역)은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기보다는 바다를 통해 해역의 다른 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문화적 환경을 보유해 왔다(살란스키 2022).³⁹⁾

바다의 항구도시, 즉 해항도시(海港都市)는 육지와 섬을 해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가 형성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항구는 섬과 섬, 항구와 항구, 항구의 해안과 강을 통해 내륙을 연결하는 활력 넘치는 해상세계의 네트워크였다. 네트워크는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내륙이나 섬 세계와 같은 다른 세계와 분리된 불변의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타 세계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매우 가변적이며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동적인 관계였다. 여기에는 바다와 섬, 그리고 육지를 모두 포괄하는 생활의 세계를 형성하는 매우 역동적인 삶의 현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지역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통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교류와 소통 경로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시장(market)이었다. 물자와 서비스 및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외부세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항구는 바다와 섬, 그리고 육지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섬과 바다를 통해 육지로 사람과 물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이면서 정보의 집결지이다. 더욱이 항구들 사이에는 소위

39) 하지만 국가라는 상위 개념이 설정되면서 섬 자체도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었고, 바다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육지의 연장으로서 해역을 분할하고 권위와 권력이 섬을 장악하게 되는 섬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교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하나로 연결된다.⁴⁰⁾

한국 영화 <관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나는 그간 파도만 보았는데 그것이 패착이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람에 의한 것인데 바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파도가 일으키는 변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의 방향을 함께 살펴야만 한다. 결국 바람이 파도가 이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파도를 추동하는 물결의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바람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야만 한다.⁴¹⁾

역사적으로 17세기 말경에 동아시아의 해양 실크로드는 ‘상업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Reid 1988, 1993). 특히 이 시기에 항구도시 국가가 크게 번성했다.⁴²⁾ 유럽이나 명나라가 교역을 주도하면서 당시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에서는 미얀마의 버구(Pegu),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아췌(Aceh),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인도네시아 자바의 бата비아, 보르네오 섬의 브루나이(Brunei), 인도양의 마카사르(Makasar), 필리핀의 마닐라, 캄보디아의 참파(Champa), 베트남의 호이 안(會安)과 탄론(昇龍, 지금의 하노이) 등의 항구도시가 번영하였다. 항구도시 는 해상 교역에 유리하도록 특화되어 있었다.⁴³⁾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의 항구도시는 바다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갔다. 신흥 항구도시들은 새

40)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항구라는 도시가 가지는 구조적인 성격과 국제적인 분기점으로서의 기능, 육지 영역 국가와의 관계 등을 문제로 삼은, 이른바 항구도시론이 주목을 끌고 있는 배경에는 항구의 이러한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과 연구가 깔려 있다. 이 중에는 아시아의 항구도시들의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새로 발견된 역사 자료를 통해 항구도시의 변천 과정과 구조, 물질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항구도시가 갖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특징과 항구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넓은 외부 세계, 그리고 항구와 이러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야지마 2003: 12 참조).

41) 2025년 2월 중에 있었던 중국 해양실크로드 답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은 변화의 바람이다. 특히 중국의 변화를 추동하는 바람이며, 그것은 중국의 도전이라는 물결 또는 파도를 일으키는 변화의 바람으로 인식되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의 도전이라는 물결을 추동하는 변화의 바람이 지니는 문화생태적 특징과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일이 이번 중국 해양실크로드 문화생태답사팀 답사(일시: 2025년 2월 15일-24일, 장소: 중국 동중국해 해안의 주요 항구도시들과 섬과 바다 일대의 사회와 문화, 역사, 생태 답사)의 주된 목적이자 목표이면서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과 기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답사 보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목표이자 과제 중 하나로 이러한 변화의 바람과 중국 도전의 물결이 갖는, 광의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를 해양실크로드의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단위 또는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를 두루 거치고, 아시아 지역과 해역,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지역적, 해역적 네트워크 세계와 해양 세계를 아우르는 초국적인 해양 세계의 관점과 방법, 그리고 내용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술적, 실천적 작업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42) 여기서 항구도시 국가란 오로지 해상 중계무역을 주도하는 항구를 국가의 존립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배후지를 갖는 인구 집약 지역을 가리킨다. 17세기 후반의 동남아시아는 ‘상업의 시대’라 명명되었는데, 그것은 항구도시 국가가 당시의 교역과 경제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Reid 1988, 1993). 이런 관점에서 당시 상업 활동이 대부분 바다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당시를 ‘바다의 시대’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43) 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과 같은 항구도시들은 근대에 들어서서 번창하였다. 이들 도시는 예전에 바다의 항구도시였던 것이 거의 재이용되고 있지만, 규모는 전혀 다르다. 또한 새로운 항구도시도 탄생하였다(Kratoska 2006: 1-2). 싱가포르나 홍콩은 전형적인 신흥도시이며, 상하이는 중화라는 영역 내의 항시가 이상적으로 확장된 곳이다.

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근대가 만들어낸 항구도시의 부두에는 상점, 은행, 호텔 등의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의 스타일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도시의 구조 또한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인종이나 기능에 의한 지리적 구분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라는 기능만을 부각시킨 바다의 항구도시만으로는 부족했다. 식민지 중심에 총독이 지배할 수 있는 도시, 즉 상징으로서의 중심도시가 필요했다. 이에 몇몇 근세 육상 제국도시가 재이용되거나 모델이 되었다. 아시아의 열대지역에서 생산되는 후추, 정향, 육두구, 칡향, 수지, 단향, 육계 등의 삼립 산물은 아랍 세계 및 유럽과의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또한 해삼, 상어지느러미, 진주조개, 바다제비집 등은 아시아 각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북방에서는 해삼과 다시마, 청어, 가리비, 고래 기름, 고래 뼈, 그리고 물개와 같은 바다짐승의 모피가 중요한 해산 교역품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물을 산지에서 모으고 교역지로 운반하기 위한 바다 네트워크는 도서지역 간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많은 상인들이 마을 혹은 하천 유역에 모인 산물을 큰 집하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중개 역할을 맡았다. 또한 상인들이 운반해 온 산물에 대한 임금이나 보수, 혹은 교환품으로 쌀, 술, 된장, 간장, 소금, 옷, 목재 등의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다. 배를 이용한 인간과 물자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월경이다.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물자가 교역되는 곳이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이제까지 바다를 평면적인 넓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에 선을 긋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수심, 해류, 해양 기상, 육지의 성질과 분포 등 자연적이고 생태학적인 조건과 정치, 경제, 종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바다에 선을 그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설정 범위와 방법, 그리고 논리가 문제시되었다.

섬에서 섬으로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문물과 정보가 전파되었다. 한편으로는 문물과 정보가 천천히 전파되는 것과는 달리, 대륙 사이를 한 번에 횡단하는 원거리 간의 전파도 있었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때로 외래의 동식물이 토착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세계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틀 속에서 각각의 지역이 지닌 자원의 특성, 즉 자연생태계, 광물자원, 인적 자원, 문명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것을 국가적 가치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세계 물류와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⁴⁴⁾ 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립을 도움으로써 경제안정과 평화를 불러오는 일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경제의 자립과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인적 네트워크화,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의 네트워크야말로 앞으로의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⁴⁵⁾

현재 우리는 육지 중심적인 생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바다 세계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 과거에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해상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동남아시아의 바다와 동중국해, 황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를 잇는 태평양의 바다에서 이루어졌던 해상 네트워크 형성과 변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실현 가능한 해상 네트워크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통해, 바다의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⁴⁶⁾

과연 동아시아의 접경 해역 또는 수역의 사회문화적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조미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아시아 항구도시문화의 형성과 변화를 추동한 접경해역 또는 수역(바다와 내륙이 연계되는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개념 역시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사회, 즉 다언어, 다종족, 다종교 형성의 역사적, 문화적 역동성을 겪은 다문화의 해양 세계와 섬사람들의 삶과 문화와의 긴밀한 관련성이나 연계성 속에서 찾아야 하고, 또 찾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항구도시들은 접경 수역이나 해역을 대표해 왔고,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주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상 조미아 또는 수상 조미아는 바다와 내륙을 연계하는 접경사회의 수역 또는 해역을 삶의 터

44) 이런 점에서 한 역사학자의 저술에 반영된 세계사에 대한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학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는 그의 방대한 저서 <리오리엔트: 아시아 시대의 글로벌 경제>를 통해 유럽의 세계 진출로 인해 비로소 세계경제가 일체화되었다는 임마누엘 월러슈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주장에 반대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을 차지해왔던 중국 중심의 아시아 세계경제가 최근 2백년 사이에 약화되었기 때문에 약 200년 동안에만 유럽에 의해 세계경제가 재편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 책 제목이기도 한 '리오리엔트(reorient)'에는 현재 세계경제가 본래의 아시아 중심의 세계경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프랑크 2003). 이제 유럽은 더 이상 문명 중심부의 위치를 점할 수 없을뿐더러 백인 기독교인의 개념 역시 더 이상 신이 부여한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신의 존재와 그 개념조차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세계관이 제기된 것이다(래비 2002: 25 참조).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육지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바다 또는 해양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것 역시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5) 바다를 통해 세계를 읽고, 나아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영토의 크기와 그에 따른 국가와 민족, 종족, 나아가 '대륙'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는 국경이나 육지의 귀속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다를 통해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은 세계를 재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46) 필자는 접경지역의 또 하나의 사례로, 동아시아 항구도시의 접경 수역 또는 해역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조미아라는 개념이 과연 적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둔다.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물론 조미아는 하나의 개념적 은유로서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념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의 개념적 은유로서 조미아는 여전히 가능성일 수도 문젯거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도서해양문화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적용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맺음말에 대신하여 자연/문화(인간)의 관계론적 전환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례9>는 자연문화의 관계론적 전환 또는 전회를 문화생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이 사례는 무안 갯벌의 환경 역사가 어떻게 자본주의 역사의 일부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9〉 무안갯벌과 ‘무안 정체성 만들기’

무안 갯벌

세발낙지, 짱뚱어, 칠게, 석화, 꼬막, 바지락 같은 명사들과
드넓다, 질펀하다, 거무튀튀하다, 말랑하다, 짹조름하다 같은 형용사
들과
기어다니다, 뛰놀다, 헤엄치다, 도망치다, 숨바꼭질하다 같은 동사들과
뿔뿔, 팔딱팔딱, 벌벌, 스멀스멀, 승승, 꾸물꾸물 같은 부사들이
함께 어울려 한바탕 걸판진 말들의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판에 사람들을 아낌없이 초대하는
바다생명들의 자궁
무안 갯벌

위 시는 김선태 시인의 ‘무안 갯벌’ 시 전문이다. 무안황토갯벌랜드에 시화가 제작되어 있다. 무안갯벌은 바다생명들의 자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섬과 바다생명들의 근원이자 본향이다.

이를 이윤선은 무안갯벌의 생극성과 연결시킨다. 그는 자신의 책 『무안에서 처음 시작된 것들』 ‘6장 갯벌과 황토, 생극의 서사를 품다’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미는 크기에 따라 구멍을 60~70센티미터 가량 판다. 그 안에 알을 낳기 위해 입에서 뱉어낸 ‘질’을 끌고루 바른다. 구멍의 천장에 대개 마리당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아 붙인다. 많이 낳은 경우는 170개 정도까지 낳기도 하고 적게 낳는 경우는 20개 남짓 낳는다. 알을 낳은 어미는 여덟 개의 다리로 끊임없이 알들을 어루만진다. 알과 알 사이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알들이 성장하고 부화할 수 있다.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산란하게 되면 날이 추울 뿐만 아니라 행여 늦은

장마라도 겹치면 부화한 새끼들이 구멍을 탈출하기 어렵다. 마치 우리 아이들의 생태와도 같다. 낙지 새끼들이 구멍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보름 정도다. 그 이후에는 구멍을 탈출해야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어미들은 부화를 위한 헌신으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고 구멍 앞에 쓰러져 있기도 하다. 살진 새끼들은 이미 구멍 밖으로 나가버렸지만 약한 새끼들은 그 어미들을 먹어치워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상을 보지 못하는 어종이라는 수식이 붙었다.”

이 역시 무안갯벌의 생태와 자연성, 생명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처럼 무안사람들에게 무안갯벌은 자연생명들의 근원이자 본향, 그리고 기억과 추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무안갯벌의 생명성은 무안황토갯벌축제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서사와 매력으로 재현되고 표상된다.

무안황토갯벌축제는 무안의 청정 갯벌과 황토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축제라고 소개된다.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무안갯벌의 소중함과 황토에서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함,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행사 계획이 마련되기도 한다.⁴⁷⁾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와 협력이다. 축제 준비과정에서 주민들과 협력해 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이라는 무안군청 소속 관계자의 말은 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⁴⁸⁾

하지만 지금 무안황토갯벌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청정 무안황토갯벌의 보존이 시급하다.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갯벌이며, 전라남도 갯벌도립공원 1호이자, 람사르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13년부터 이러한 무안의 대표적인 청정 자원인 황토와 갯벌을 소재로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황토갯벌에서 나온 무안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무안황토갯벌축제는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로, 무안 정체성 만

47) 일본 인류학자 이토 아비토에 의하면, 진도 영등축제가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다이다. 지리적으로는 주변적인 위치에 존재하지만, 산은 그 중심이 정상에 있고 봉우리에 의해 보다 높은 다른 봉우리로 연결된다. 즉 구심적 위계적 구조와의 종합성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다는 외부로 넓게 열려 있고, 체제 이외의 권위나 가치에도 개방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래 중앙집권적 체제에 있어서 산은 주로 신성한 권위나 가치와 결합된 것으로 간주되어 온 반면에, 바다는 외적 재앙이나 다른 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적 신앙에 있어서도 신성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주변에 위치한 도서지역에 있어서 그 사회적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는 명백히 새로운 가치와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매개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이토 2002: 88-89).

48) 김동국. 2019년 5월호. “월간 MICE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무안황토갯벌축제”. 『월간 MICE』.

들기의 대표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무안황토갯벌축제는 무안의 청정갯벌의 소중함과 황토에서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축제이기도 하다. 지역에 대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축제는 주민들과 함께 준비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주민들과의 협력 과정 자체가 축제의 한 과정이 된다.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갯벌이며, 전라남도 갯벌도립공원 1호이자, 랍사르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13년부터 이러한 무안의 대표적인 청정 자원인 황토와 갯벌을 소재로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황토갯벌에서 나온 무안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으로 무안황토갯벌랜드는 갯벌습지보호지역, 랍사르습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 멸종위기종 생물을 포함한 250종 이상의 저서동물과 계절마다 무안갯벌을 찾는 철새관찰 명소로 갯벌 보전 및 체험교육을 위한 갯벌생태과학관, 갯벌생태공원, 갯벌탐방로, 분재전시관, 오토캠핑장·황토이글루·황토음막·캐러반·방갈로 등의 숙박시설과 찜질방, 식당, 편의점 등의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축제 기간 외 평소에도 많은 캠핑객,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체험이 축제 키워드(열쇠말)였다. 무안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원이다. 그런 소중한 갯벌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껴볼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도시민들에게 갯벌 체험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다양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과 무안의 황토에서 자라난 쌀·양파·마늘 등의 농특산물, 돼지짚불구이 같은 먹거리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는 개막식에서 농사의 풍년과 고기잡이의 풍어를 기원하는 풍요깃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무안군 9개 읍면의 주민들과 풍물패 260명이 깃발을 들고 풍악을 울리며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이동하는 퍼레이드 저희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이밖에 낙지·장어잡기, 운저리낚시, 농게잡기, 돼지짚불구이, 양파캐기, 연날리기,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갯벌은 검은 비단이라 불린다. 무안황토갯벌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갯벌이다. 검은 비단이라고까지 불리는 갯벌은 갯벌습지보호지역, 랍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 귀중한 생태자원이다. 이러한 갯벌에서 살고 있는 여러 생물종과 철새들을 직접 관찰하고, 낙지·장어잡기, 운저리 낚시, 농게잡기, 갯벌운동회, 갯벌씨름대회 등 갯벌을 활용한 다양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느껴볼 수 있어 갯벌을 축제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자연이 내려준 천혜의 자원인 무안갯벌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다. 추억을 통해 ‘무안 정체성 만들기’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⁴⁹⁾

무안갯벌은 천혜의 자원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매체로 소환되고 동원된다. 무안항토갯벌축제는 자연이 내려준 천혜의 자원인 무안갯벌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사람들이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방문한 축제장은 사람들에게 자연 자원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선물하는 데 적합한 장소, 즉 적소(謫所)가 된다. 여기서 무안갯벌에 대한 레트로 감성, 즉 기억과 추억, 향수와 노스텔지어가 만들어지는 장소성(placeness, place-based)이 구현된다. 장소성은 ‘장소성 콘텐츠’(place-based contents)의 기초 재료이다.

이러한 ‘장소성 콘텐츠’를 무안 문화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장소성 콘텐츠는 공간적인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실경 공연콘텐츠이며, 지역문화 지향의 차별화, 고급화된 지역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무안은 역사문화 기반의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한다. 이러한 이미지로 관광산업에 의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외부인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전원 도시의 이미지, 섬과 바다의 포구 도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와 브랜드 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해 무안을 지속적으로 오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장소, 살고 싶은 도농복합도시라는 무안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안이 가진 지역적인 문화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체적인 편의 시설을 형성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핵심 인프라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투자에 의해 관광 시설을 재생산해야 할 것이다. 문화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형성할 수 있게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지역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적 매력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간의 교통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육로와 해로에 있어서 상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관광 생산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관광객들이 무안에 와서 소비할 수 있게 철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과 실천을 가능하게 할 전문적인 관광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소성의 콘텐츠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무안갯벌에서는 갯벌에서 자연을 작동시키는 자연 연행, 즉 매향(埋香)의례를 통

49) tour.muan.go.kr/tour/festival/getbol

해 자연생태와 예술을 결합시키는 시도가 있었다(조경만 2015; 이윤선 2022 참조).⁵⁰⁾ 매향의례는 의도적 차원에서 ‘갯벌’이라는 ‘자연을 연행’하는 의례이다. 그것은 생태예술의 이슈와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향의례는 무안 갯벌과 의례 사이의 생태적 ‘관계’의 표현이다. 자연과 인간 생활에 놓인 몸과 사물의 물성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 지각이 이러한 생태적 관계를 형성한다.⁵¹⁾

결론적으로, 무안갯벌의 매향은 갯벌에 향을 묻음으로써 자연과 사물을 불러일으키고 인간 삶의 지속과 미래 삶으로 상호관계가 연속되도록 하는 의례였다. 이후 연행된 춤을 보면 매향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의되고 활성화된 장소성이 작동하고 몸이 이를 느낌으로 지각으로 수용하여 춤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역으로, 춤으로 다시 장소에 활력을 넣고 의미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조경만 2015: 9-10). 결국 의례와 춤을 통해 단순한 제의와 예술의 존재론적 위치를 넘어, 역동적이고 중층적인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구현되는, 일종의 생태예술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담은, 생태예술문화로서의 위상과 지위로 재생, 부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역사가 철저히 ‘환경’의 역사이며, 환경과 생태의 역사는 다분히 ‘자본주의’의 역사임을 여실히 예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0) 조경만. 2015. “생태예술, 복미원주민 의례 속의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무용역사기록학』 36: 9-48.

51) 매향은 미래 삶의 종교적 염원을 의미한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매향(埋香)은 자연과의 접촉, 자연과 인간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향나무라는 사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전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는 물건들(things)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사람들은 만들어진 물건들에 엄청난 존중을 부여하곤 한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참여, 우리의 이해 그리고 그 물리적 성격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물화(materialize)시킨다. 이런 점에서 매향은 사람들이 미래를 기리는 시간성과 존중과 삶의 꿈을 향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물화시킨 역사적 사례이다. 이 과거의 사실에 담긴 몇 가지 관념들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응용한 한 예가 2012년 5월 10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용산리, 함해만 갯벌에서 열린 매향의례이다(조경만 2015: 9-10).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가이아 빈스 저. 김명주 역. 2018. 『인류세의 모험: 우리가 만든 지구의 심장을 여행하다』. 공출판.
- 가이아 빈스 저. 김명주 역. 2023. 『인류세, 엑소더스: 기후격변이 몰고 올 전 지구적 생존 룰포르타주』. 공출판.
- 고명섭. 2020. 06. 12. “인간중심 넘어 모든 존재가 공생하는 ‘공-산 사회’ 가능할까”. 『한겨레신문』 기사. 문화책과 생각.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49048.html>
- 고병권. 2020. 05. 25. “동물 앞에서 발가벗은 인간”. 『경향신문』 오피니언. 고병권의 목록. <https://www.khan.co.kr/article/202005250300115#c2b>
- 그레이엄 하먼 저. 김효진 역. 2019. 『네트워크의 군주: 부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갈무리.
- 그레이엄 하먼 저. 서동진 해제. 주대중 역. 2019. 『쿼드러플 오브젝트』. 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 그레이엄 하먼 저. 김효진 역. 2024. 『실재론 입문』. 갈무리.
- 그레이엄 하먼, 크리스토퍼 윌트모어 저. 김효진 역. 2025. 『반시대적 객체: 객체지향 철학과 고고학』. 갈무리.
- 김동국. 2019년 5월호. “월간 MICE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무안항토갯벌축제”. 『월간 MICE』.
- 김상준. 2022. “금요진단: 신기후체제와 영화 ‘아바타’”. 『내일신문』 2022. 12. 3. 기사.
- 김수진. 2019. “『숲은 생각한다』, 차은정 역, 『숲은 생각한다』, 고양: 사월의 책. 서평”. 『비교문화연구』 25(1): 365-373.
- 김지혜. 2024. “굴양식의 정치생태학”.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집담회 〈인류세의 바다양식-기술·문화생태학〉 발표 자료집(미간행).
- 김창민. 2002. “비금도의 친족조직과 친족원리”. 『도서문화』 19: 181-206.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도나 J. 해러웨이 저. 황희선 역. 2019.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책세상.
- 도나 J. 해러웨이 저. 황희선, 임옥희 역. 2023.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arte(아르테).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저. 이신철 역. 2023. 『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에코리브르.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저. 이신철 역. 2024. 『하나의 행성, 서로 다른 세계: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자세』. 에코리브르.
- 마르셀 모스 저, 이상률 역. 류정아 해제. 2002. 『증여론』. 한길사.
- 마르셀 모스 저. 박세진 역. 2025. 『증여론: 태고 사회의 교환 형태와 이유』. 파이돈.
- 마르셀 에나프 저. 김혁 역. 2018. 『진리의 가격: 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 눌민.
- 마빈 해리스 저. 박종렬, 서진영 역. 2017.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 마셜 살린즈 저. 김성례 역. 1991. 『문화와 실용논리』. 나남.
- 마셜 살린즈 저. 박충환 역. 2023. 『석기 시대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메리 더글러스 저. 유제분 역. 1997.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 메리 더글러스 저. 방원일 역. 2014. 『자연 상징: 우주론 탐구』. 이학사.
- 문규민. 2022.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두번째테제.
- 박성현. 2021. 1. 18. “육지와 섬 하나로 연결 ‘연륙·연도교’ 사업 활발”. 남도일보·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박종오. 2022. “탐진강 ‘장어다물’ 어로와 생태”. 『무형유산』 12: 89-117. 국립무형유산원.
- 박종오. 2024. “당산제에 반영된 생태환경의 변화와 강(江) 문화 흔적: 나주시 공산면 상구마을 당산제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 48: 7-43.
- 박준영. 2023.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 브뤼노 라투르 저. 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 브뤼노 라투르 저. 홍성욱, 장하원 역. 2018. 『판도라의 희망: 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휴머니스트.
- 브뤼노 라투르 저. 박범순 역.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이음.
- 브뤼노 라투르 저. 황장진 역. 2023. 『존재 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사월의책.
- 브뤼노 라투르, 니콜라스 트뤼옹 저. 이세진 역. 배세진 감수. 2025. 『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 북복서가.
- 빅터 터너 저. 김익두, 이기우 공역. 2014.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민속원.
- 빅터 터너 저. 강대훈 역. 2018.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타스』. 황소걸음.
- 빅터 터너 저. 장용규 역. 2020. 『상징의 숲 1』.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 빅터 터너 저. 장용규 역. 2020. 『상징의 숲 2』.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 세드릭 뒤랑 저. 주명철 역. 2025. 『기술 봉건주의: 빅데이터 제국에 포획된 현대 경제와 민주주의』. 여문책.
- 송기태. 2021. 1. 11. “서해·남해바다 온통 ‘양식장’으로 변모”. 남도일보·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송성도 2025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수업 ‘종교인류학’의 단독방 대화.
- 심귀연 저. 2024.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브뤼노 라투르, 로지 브라이도티, 제인 베틀, 도나 해러웨이, 카렌 바라드의 생각』. 날.
-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이희재 옮김. 2003. 『리오리엔트: 아시아 시대의 글로벌 경제』. 이산.
-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1999. 『그람시의 옥중수고1: 정치편』. 거름.
- 야지마 히코이치 지음. 김정환 옮김. 2003. “서양에서 본 바다의 아시아사”, 오모토 케이이치 외 3인 편, 김정환 역, 『바다의 아시아1: 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 pp. 103-131.
- 애나 칭 지음. 노고운 옮김. 2023, 『세계 끝의 버섯』, 현실문화연구.
- 에두아르도 콘 저. 차은정 역. 2018.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사월의책.
- 에티엔 발리바르 저. 배세진 역. 2025. 『개념의 정념들: 인식론, 신학, 정치학-에크리 II』. 후마니타스.
- 오명석. 2010. “선물의 혼과 신화적 상상력: 모스 『증여론』의 재해석”, 『한국문화인류학』 43(10): 3-46.
- 오명석. 2023. “호혜와 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비교문화연구』 29(2): 413-427.
- 오스카 루이스 저. 박현수 역. 2013. 『산체스네 아이들: 빈곤의 문화와 어느 멕시코 가족에 관한 인류학적 르포르타주』. 이매진.
- 유디트 살란스키 지음. 권상희 옮김. 2022. 『머나먼 섬들의 지도: 간 적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55개의 섬들』. 놀아.
- 윤법달. 2015. 07. 05. “사회주의적 종교지형의 원리와 적용”. 『통일뉴스』 기사.
- 이성철. 2009. 『안토니오 그람시와 문화정치의 지형학-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조망을 위하여』. 호밀밭.
- 이윤선. 2022. 『무안만에서 처음 시작된 것들』. 다할미디어.
- 이윤선. 2024. 11. 11.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67) ‘신화와 육감’을 잃어버린 시대를 고발하다”. 『국악신문』 2014. 11. 11. 국악신문사.

- 이윤선 외. 2009 『서해와 갯벌』. 도서해양문화연구총서-10. 경인문화사.
- 이윤선 외. 2022. 『문화자치 시대의 한국 지역학: 물 아래 무안에서 쏘아 올리는』. 다할미디어.
- 이진경. 2019. “[고전다시읽기] ‘선물’은 부족 공동체 묶는 끈”, 한겨레신문 2019. 10. 20일자 기사.
- 이토 아비토 나는 야만인, 일본인은 야만인
- 이토 아비토 저. 2003. “호남 도서지역의 지역활성화에 있어서의 바다”. 『호남문화연구』 30: 71-89.
- 임은제 지음, 2022, 『데리다의 동물 타자』. 그린비.
- 자크 데리다, 최성희, 문성원 역, 2013,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겨울 76호.
- 자크 데리다, 안 뒤푸르망텔 저. 이보경 역. 2023.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 전경수. 2024. “요내기 밥 주기-진도학이 가야 할 길: 세상을 향한 지도 지혜”. 지도학회 창립 4반세기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미간행).
- 정현목. 2018. “증여의 네 번째 의무: 희생제와 선물교환, 그리고 사회 혹은 공동체의 형성”, 『비교문화연구』 24(2): 471-501.
- 제이슨 W. 무어 저. 김효진 역.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갈무리.
- 제인 베틀 저. 문성재 역.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현실문화.
- 제임스 퍼거슨, 조문영 역, 2020 『분배 정치의 시대』, 여문책.
- 제임스 C. 스콧 저. 이상국 역. 2015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 제임스 퍼거슨, 이동구 역, 2024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분배에 관한 인류학적 사유』, 여문책.
- 조경만. 1995. “전남의 농어촌 연구: 도서생태계와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6: 193-219.
- 조경만. 2014. “생태예술, 개념화와 실천의 모색들”, 『공동체의 춤에서 생태예술의 춤으로: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역사와 전망』, 무용역사기록학회 제16회 국내학술심포지엄 프로 시딩.
- 조경만. 2015. “생태예술, 북미원주민 의례 속의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무용역사기록학』 36: 9-48.
- 조르주 바타이유 저. 조한경 역. 2000. 『저주의 몫』. 모더니티 총서-10. 문학동네.
- 지오마케팅 편집부. 2005. 『붉은 황토와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여행』. 지오마케팅.
- 조지프 슈나이더 저. 조고은 역. 2022. 『도나 해러웨이』. 책세상.
- 줄리아 애드니 토트, 마크 윌리엄스, 안 잘라시에비치 저. 박범순, 김용진 역. 2024. 『인류세 책: 행성적 위기의 다면적 시선』. 이음.
- 줄리안 스투어드. 조승연 역. 2007. 『줄리안 스투어드의 문화변동론: 문화생태학과 다선진화 방법론』. 민속원.
- 최유미. 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 최재천 외 저. 2011.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출판.
- 최정민. 2021. 2. 15. “청·장년층 유입만이 섬 공동체 붕괴 막는다”. 남도일보·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캐럴린 머천트 저. 우석영 역. 2022. 『인류세의 인문학: 기후변화 시대에서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동아시아.
- 퀸탱 메이야수 저. 정지은 역. 2024. 『유한성 이후: 우연성의 필연성에 관한 시론』. (개정증보판). b(도서출판비).
- 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이상북스.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1996. 『야생의 사고』. 한길사.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임옥희 역. 2000. 『신화와 의미』. 이괄리오.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임봉길 역. 2005. 『신화학 1: 낱것과 익힌 것』. 한길사.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류재화 역. 2012. 『오늘날의 토테미즘』. 문학과지성사.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강주현 역. 2016. 『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 arte(아르테).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류재화 역. 2018.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문예출판사.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박정호, 박세진 역. 2023. 『마르셀 모스 저작집』 서문. 파이돈.
- 페르낭 브로델 지음. 강주현 옮김. 2006. 『지중해의 기억』, (주)도서출판 한길사
- 표트르 엘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저. 이현 역. 2005.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라이브러리-07. 르네상스.
- 피에르 클라스트르 저. 변지현, 이종역 공역. 2021. 『폭력의 고고학: 정치 인류학 연구』 (개정판). 울력.
- 피에르 클라스트르 저. 홍성흡 역. 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이학사.
- 피터 래비 저. 이나경 역. 2002 『파라다이스의 사냥꾼들』, 홍익출판사.
- 필리프 데스콜라 지음. 차은정 옮김. 2022. 『타자들의 생태학: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인류학』. 포도밭.
- 홍석준. 2021. 1. 1. “위기 바람·변화 물결 속 섬 정체성 재확인해야”. 남도일보·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홍석준. 2021 “섬마을에 얹힌 이팝나무 전설과 용왕제” 남도일보·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홍석준. 2023. “‘섬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 ‘도서성(島嶼性, insularity)’에서 ‘섬성(섬性, islandness)’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도서문화』 62: 9-35,
- 홍석준 2024 “‘섬 정체성’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 ‘도서성’과 ‘섬성’의 공존 가능성에 관한 탐색”. 『도서문화』 64: 215-245.
- 홍선기. 2021. 1. 4. “코로나 팬데믹 여행업계 ‘췌다운’ … ‘생태관광’ 시대 도래”. 남도일보·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기획 기사.
- Dodds, Klaus and Royle, Stephen, A. 2003 “The historical geography of islands Introduction: rethinking island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9(4): 487-498.
- Hamashita, Takeshi 1994 “The Tribute System and Modern Asia,”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A. J. H. Latham and Heita Kawakatsu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ratoska, Paul H. 2006 “Singapore, Hong Kong and the End of Empire,”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3(1): 1-19.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Worden, Nigel 2003 “National Identity and Heritage Tourism in Melaka,” *Indonesian and the Malay World* 31(89): 31-43.

참고 사이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73291&cid=40942&categoryId=33081>
<https://www.kyosu.net>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3340>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49048.html>
<http://www.namdonews.com>
https://inmoonse.com/sapiens/sapiens_mind/?mod=document&uid=1040
<https://lifecuration.tistory.com/177>
https://blog.naver.com/silcamera/1402038861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lifecuration.tistory.com/177#footnote_link_177_3
<https://www.naeil.com/news/read/446856>
<https://www.jnilbo.com/75725426105>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75446.html>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448252>
<https://www.yes24.com/product/goods/60759382>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1826549>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0925600>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9107607>



「도서해양문화 변동의 문화생태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 창 언 | 전 영남대학교 교수

이 발표문은 최근 지구가 봉착한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더욱이 도서해양문화의 문화생태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기후 위기를 초래한 그간의 사정을 비판적으로 전개하면서 새로운 위기를 점검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향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한 분석틀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전복의 변증법을 표방한 것에서 도서해양문화의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펼치기 위한 발표자의 많은 학문적 고민과 열의를 잘 살필 수 있다.

현대 철학과 최근에 많은 관심을 이끄는 인문학적 논의에 익숙하지 않은 토론자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전복의 변증법을 이해하고 토론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중심의 자연관에 기초하여 사회와 문화를 기술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낯선, 심지어 기존의 사유를 초월하거나 전복해야 어렵듯이 포착 가능한 새로운 존재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이분적 인식틀로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에 익숙한 발표자에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가 지구적인 과제로 급부상한 기후 위기를 관계론적 재구성, 인류세, 뉴노멀, 자연인류학 등의 개념을 소개하며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존재론적 전회의 논의로 이끈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향에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발표자가 소속한 기관에서 도서 및 해양문화와 관련한 검토와 진단에 기초하여 제기해 온 여러 지향에 관한 논의를 망라하며 정리한 발표문의 내용과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한편으로 함께 논의를 심화해 보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현재 지구적인 위기로 인식되는 공간과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인간 삶의 황폐화와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인 자연생태의 붕괴를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근래 인문학적 논의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 배제된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로 사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

가 이런 논의를 도서해양문화와 그 변동의 이해에 적용하여 특히, 섬의 인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관계의 지형 속에서 인문 주체들의 활동을 해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과 육지의 관계론적 관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는 변화하는 인문지형의 인식에 기초하여 제 요소와 세력 사이의 상호관계와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의 층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놓고 볼 때, 발표자는 관계론적 재구성의 관점에서 도서해양문화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당위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즉, 관계론적 재구성에 기초하여 변화의 국면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대안이나 새로운 지향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혹은 성찰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뒷받침할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제시한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시한 용왕제를 비롯한 여러 사례는 그동안 인류학에서 수없이 논의한 토착 지식과 토착 지혜의 현재적 함의와 관련하고, 현재적 위기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모스의 선물주기·받기·되갚기, 더글러스의 순수와 부정, 터너의 코뮤니타스, 말리노프스키의 쿨라링, 문화유물론의 포틀레취, 폴라니의 인간의 경제, 무안 갯벌의 매향의례, 나아가 무어의 생태적인 비근대적 사고방식, 조금 더 나아가 발표자가 언급한 섬의 철학과 정체성은 소박함과 비폭력이라는 주장 그리고 아나키즘을 연상케하는 조미아 등에 관한 논의는 섬과 해양을 새롭게 보는 관점 혹은 전복적 관점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아니면 이러한 기존의 논의가 관계론적 재구성 혹은 관계의 생태학에 비추어 새로운 지향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자연과 문화(인간)의 관계론적 전환의 의미에 관해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 발표자는 무안 갯벌의 생태, 자연성, 생명성에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예술문화의 언급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의 관점에서 객체로 간주한 자연을 전복된 관점에서 새로움을 지향하려면, 다시 말해 기존의 인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의 특이성과 창발성을 간파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천 광 산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1. 서론 : 조선해양산업의 전환기

조선해양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산업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 강화, 인력 부족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구조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정책 강화, EU·미국의 그린조달 기준 확대, 선주사의 ESG 경영 강화 등은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하나는 친환경 선박이며, 다른 하나는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이다. 친환경 선박은 탄소 배출 감축을 실현하며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이며, AI 자율제조는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본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조선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조선해양산업의 주요 변곡점

태초부터 인류에게 배란 생존을 위한 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 등의 재료가 물에 뜨는 것을 발견한 인류는 이를 엮어서 배로 만들 고민을 했을 것이다. 단순히 물에 뜨는 도구로서 배는 타는 도구로 전환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사냥하는 모습,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배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활동 당시에는 분명히 대륙

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5만여 전부터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은 배를 타는 도구로 여겼을 것이라는 상상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실이다.

이러한 탈것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이다. 당시 서구 문명의 사람들에게는 지중해는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세상을 정복하였다고 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기원전 356년~323년)은 지중해를 ‘헤메테라 탈라사(우리바다)’라고 표현하였고, 서쪽 끝의 대서양을 ‘오케아누스(세계의 경계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만 보아도 지중해는 그 당시 서구 문명권의 중심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심 바다에서 배는 단순히 물에 뜨는 탈것에서 선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선박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듯 수송과 약탈 그리고 전쟁의 도구로 발전하게 된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벤허(1959)’에서 잘 묘사했듯이 그 시기 선박의 주요 동력은 사람이었다. 지중해는 남북 거리가 짧고, 동서 방향으로 많은 섬들이 존재하며 비교적 내해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를 저어 항해를 하는 게 큰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초기 형태에서 발전한 선박은 서구 문명이 유럽을 벗어나지 않는 14~15세기 까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14세기 초 비잔틴 제국의 쇠퇴기에 아나톨리아 서북부 지역에서 오스만 세력이 발흥함에 따라 선박은 다시 변화를 맞게 된다. 당시 유럽인들은 후추, 육두구 등 향신료에 열광을 하던 시기였고 유럽인들의 호사를 위하여 아라비아 상인이 이러한 향신료를 남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부지런히 중개를 하였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오스만 세력이 발흥을 하며 육로를 통한 향신료 교역이 끊어지게 되자 유럽인들은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다. 당시 대서양에 인접해 있던 포르투갈부터 향신료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바스코 다 가마(1460~1524)로 상징되는 대 탐험의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된다. 바야흐로 ‘대항해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선박은 인력이 아닌 풍력에 기반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며 이를 대표하는 선박이 ‘카락’이나 ‘캐러벨’이라 할 수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항해를 할 때 사용한 ‘산타마리아’호의 선종도 바로 ‘카락’이다. 원양 항해에 돛배를 사용함으로써 선박은 보다 커지고 적재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대항해 시대는 다른 말로는 ‘대 탐험의 시대’ 또는 ‘대해적시대’로 표현되는 데 서구인들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탐험, 정복, 약탈, 학살, 식민지, 노예 등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이 세계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을 때 유럽 서쪽 섬나라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게 된다.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양모 생산, 도시 노동력 및 모직물 생산이 급증한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은 이러한 모직물을 유럽 시장에 수출을 해야 하나 스페인의 ‘무적함대’에 번번히 막힐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해적이던 드레이크를 기사 작위에 임명한 엘리자베스 1세는 무적함대와 대립을 하던 차에 1588년 칼레 해전의 승리를 통해 세계 바다를 점령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고 이는 향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칼레 해전에서 영국의 주력 선박

은 ‘갈레온’이라는 포격 전용의 대형 범선으로 콜럼버스 시대로부터 단순히 돛배가 아닌 포격전을 염두에 둔 전열함으로 발전한 형태를 띄게 된다. 이렇게 발전한 선박은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증기 기관을 도입하게 되고 철갑선으로 발전하게 된다.

잠시 시각을 돌려 동아시아에서의 선박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는 뚜렷한 선박의 발전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19세기 전까지 세계 최강 국가는 명,청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명, 청대에서는 정화의 해외원정 사례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육상 국가였다. 당시 세계 최대, 최강의 국가인 명, 청나라에서는 굳이 바다로 항해를 해야 하는 요인을 찾기는 힘들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도 유럽에 비해 항로가 짧아 연안 항해가 가능한 수준의 선박 이상은 발전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다른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선박도 ‘필요’에 의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는 2차세계대전 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독일 잠수함의 유럽 봉쇄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리버티선’이라는 화물선을 2710척을 찍어내게 된다.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1968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00척 건조 기록을 세우고 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건조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는 세계대전 이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일본은 용접 공정을 사용한 선박 건조를 통해 1980년대까지 세계를 재패하게 된다. 당시 후발 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건조공법의 혁신을 통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조선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건조량 1위 타이틀은 중국으로 넘겨주는 상황이다.

조선산업에서는 ‘조선 중심지 서진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조선산업의 중심이 영국→미국→일본→한국→중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국으로 조선산업의 패권을 넘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본 발표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친환경 선박’과 ‘AI 자율제조’가 어떤 ‘필요’가 있고,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2. 친환경 선박 개발의 필요성과 전망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LNG,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연료 기반의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엔진·연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술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동향은 LNG 이중연료 추진선박은 현재 상용화 수준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고, 암모니아 및 수소 연료 선박은 개발단계에 있으나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선박들은 중국에는 전기추진선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추진선박의 동력원은 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SMR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대형 조선소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많은 국책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3. AI자율제조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현

조선해양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이었다. 21세기 들어서 고용창출산업으로 그 개념이 조금 바뀌긴 하였지만 그 본질은 사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 개발이 되면 이를 컨베이어 시스템이라 부르는 흐름 생산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형태를 띄고 있기에 바다 위에 떠 다니는 배들은 절대 같은 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변수들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세계 조선 패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주문주의 요청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설계-생산 시스템이었기에 변수들은 더욱 많게 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신규 경제 인구의 3D 업종 기피로 인하여 노동이 집약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AI기반의 자율제조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자율제조란 센서, IoT,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로봇, AI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설계부터 생산, 검사까지의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조선소 운영방식을 말한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체계에서 고효율, 고정밀의 자동화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주요 기술 요소로서 아래와 같은 기술들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 디지털 트윈: 선박의 가상 모델을 구축해 설계-제작-운항 전 주기를 실시간 시뮬레이션
 - AI 품질검사: 용접부, 도장면의 결함을 AI 비전 기반으로 자동 검출
 - 로봇·지능형 장비: 자동 용접, 절단, 조립을 수행하는 자율형 로봇 시스템
 -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전 공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작업 순서, 인력 배치, 자재 흐름을 최적화
- 하지만 이 또한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인프라 투자 및 기술 지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무수히 남아 있는게 현실이다.

3. 결론 : 지속가능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앞서 우리는 '필요'가 어떻게 선박을 발전시켰는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선박은 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조선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이며, AI 자율제조는 생산성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술이다. 이 두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이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친환경·AI 융합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선박과 AI자율제조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토론편

부 승 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오늘날 조선해양산업은 다시 한 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친환경 규제 가속화,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과 ‘AI 자율제조’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 전환기의 핵심 동인을 역사적 고찰과 미래 기술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가 기술을 진화 시킨다’는 관점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셨습니다.

1. 친환경 선박 개발의 당위성과 파급력

IMO의 ‘Net Zero 2050’ 전략,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선주사의 ESG 경영 강화 등은 친환경 선박 개발을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NG 추진선은 이미 상용화되었고, 암모니아-수소 기반 선박 및 전기추진 선박은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단순한 환경 대응 수단을 넘어, 조선소의 수주경쟁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동력원으로 한 전기 추진선박은 원전 기술과 조선 기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 통합형 성장 전략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으로서의 AI자율제조

조선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령화, 3D 업종 기피, 수작업 공정의 한계는 AI 기반 자율제조라는 해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형 생산 방식이 주류인 조선산업에서, 디지털 트윈, 로봇자동화, AI 품질검사 기술 등은 변수 많은 생산 현장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 AI 인재 유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족 등의 구조적 약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3. 결론 및 제언

역사는 늘 ‘필요’에 따라 기술을 발전시켰고, 조선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필요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향후 10년, 20년의 산업 지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 1)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상용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및 규제 선점을 정부가 리드해야 합니다.
- 2) 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위한 중소조선소 지원 정책: 대형 조선소에 집중된 기술 개발을 중소형 조선소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공유 및 플랫폼 기반 제공이 필요합니다.
- 3) AI 융합 인재 양성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오픈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요구됩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은 ‘친환경과 디지털’이라는 쌍두마차를 어떻게 운용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혁신의 돛을 올린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llegible]

[illegible]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illegible]

[illegible]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
위원장

홍 석 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정 문 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이 은 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문 해 남	(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김 덕 룡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홍 선 기	(사)한국섬재단 이사장

조직위원

이 경 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 성 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최 은 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정 성 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황 상 석	(사)장보고글로벌재단

학술 및
분과위원

위원장	김 경 옥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위 원	김 재 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 성 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송 기 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 경 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최 성 환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홍 선 기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김 강 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정 진 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홍 옥 속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정 성 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무국

최 은 정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 상 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임 영 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정 희 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임 하 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해문 海文과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
인문 人文의 관계

자료집 1 전체회의(주제발표/종합토론)

찍은 날 2025년 8월 21일

펴낸 날 2025년 8월 21일

주최·주관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도서문화연구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재)한국해양재단,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사)한국섬재단

후 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부산항만공사

펴낸 곳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이 자료집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10990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6A3A01109908)